

# MAGNUM KOREA

## 사진집 - 한글해설본

---

2

☞ 강원도 속초, 설악산

= 신성하다 하여 설봉산·설화산 등으로 일러 왔다. 설악산은 한국의 명산 가운데 하나다. 변화무쌍한 봉우리들과 깊은 골이 웅혼하고도 조화롭다. 슬기로운 자는 막힘없이 움직인다 하여 물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는 고요하고 그 마음 깊어 산과 어울린다는 동양 철학의 격언이 더없이 어울린다.

5

☞ 강원도 강릉, 선교장

= 300년 역사를 간직한 전통 사가다. 여전히 후손들이 산다. 집 앞에서 배로 만든 다리로 경포 호수까지 다녔다해 선교장이라 이름 지어졌다. 입구에 있는 큰 인공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가 사진 속 '활래정'이다. 벽이 없다. 대신 접고 펴는 '띠살창'이 있어, 여름철 사방이 트인 누각이 된다. 호수에 연꽃이 가득 필 때면 슬쩍 연꽃 위 배 한 척 된다.

6-7

☞ 서울특별시

= 면적은 남한 국토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 금융의 절반, 사업체의 24%가 몰려있다.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결집된 역량에 바야흐로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가 됐다. 민족의 젖줄로 불리며 도심 가운데를 가르는 한강은 반만년 서울을 오롯이 비취 왔다. 휘황한 네온사인을 뒤로 한 채 밤낚시를 즐기는 한여름 강태공의 웃음까지.

8

☞ 서울특별시 - 명동

= 한국의 패션과 젊음을 가늠하려면 이곳에 가야 한다. 명동. 끼와 멋이 넘치는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북적이며 늦은 밤까지 술렁인다. 인파에 휩쓸려 다닐 정도다.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유행을 선도하고, 소비문화를 이끌어 왔다. 대형 백화점, 쇼핑몰, 맛집, 극장 따위로 일대가 빼곡하다. 일본인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관광지다.

10

서울특별시 - 명동

= 명동 일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한국의 역동적 발전상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상가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첨단 변화가로 자리한다.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은행 본점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서도 일대 용마루엔 명동성당이 우뚝 서 있다. 군사정권에 맞서 목숨을 내건 민주화 시위가 80~90년대 이어질 때 결연히 앞장섰다.

27

강원도 속초 - 설악산

= 오색 단풍 차려입은 설악산 계곡의 오후가 여유롭다. 1년 사계절에 걸쳐 300만 명 안팎의 등산객이 찾는다. 그중 20~25%가 10월 한 달에 몰린다. 한국 가을의 절정 즈음인데, 그만큼 '가을옷' 입은 설악산은 빼어나다. 예로부터 소인목객들이 풍류를 즐긴 계곡이 굽이친다. 유네스코가 1982년 국내 첫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28

경상북도 울릉 - 독도

= 한 시인은 "사랑하는 막내아우"라 하며 그리움을 표현했다. 한반도 최동단에 자리한 화산섬, 독도다. 바다제비, 갯가리새 등 희귀새들과 안개의 낙원이다. 일본이 기존의 역사를 무시한 채 영유권을 주장하자, 2005년부터 일반인의 방문이 전면 허용됐다. 한국인에게 그저 작은 바위섬이 아니다. 현재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29

강원도 속초 - 설악산

= '악'자가 들어간 한국 산은 험하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산은 오른 만큼만 자신을 보여준다고들 한다. 힘겹게 오르면, 설악산은 국내 최고 높이의 대승폭포(88m), 최고도에 있는 암자, 봉정암(1224m) 등을 드러내 보인다. 이곳 봉우리들은 한반도 산줄기의 주요 길목이다. 능선과 봉우리만 타고서 백두산부터 호남의 지리산까지 닿을 수 있다. '백두대간'이다.

30

강원도 횡성 - 민족사관고등학교

= 개나리 담장 너머 전통 가옥이 중후하게 솟아 있다. 하지만 들어가면 뜻밖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교교생들을 만난다. 1996년 문을 연 자립형 사립 명문고다. 민족 주체성과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한다. 전교생 450명에 교사가 물경 60명 안팎인데 절반 이상이 박사급이다. 학생 대비 교사진이 미국 대학 수준이다.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대회에서 입증되어왔다.

31

전라북도 익산 - 원불교 총본산

= 1916년 전남에서 개창된 민족종교, 원불교의 총본산이다. 개신교와 천주교처럼 원불교와 불교도 한 뿌리로 닿아 있다. 교리는 물론 다르다. 불효하는 며느리를 부처님에 대한 공덕으로

고치려 왔다는 노부부를,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은 왜 살아 있는 부처(며느리)에게 공덕을 드리지 않느냐며 돌려보냈다 한다. 일테면 내생보다 현세의 인과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32-33

경상북도 영주 - 시골 마을

= 지역 인구는 갈수록 준다. 평균 연령은 치솟는다.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난 탓이다. 40~50 대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는다. 강원도 화천 산골 마을에선 최근 25 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마을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귀농 바람이 불기도 한다. 이나저나 마을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킬 뿐이다.

34

서울특별시 - 조계사

= 연등이 주렁주렁 매달린 사찰에서 한 여성이 책을 읽는다.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대표 종파인 조계종 총본사다. 한국 종교인구의 절반이 불교 신자다. 분당 외에 토착 신을 모시는 명부전이나 돌무더기가 한국 사찰엔 많다. 오랜 세월, 한국인의 걸목이면서 안식처로 자리매김해 왔던 것이다.

35

서울특별시 -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

= 경복궁은 500 년 조선 왕조의 요람이다. 국왕이 곧 나라였으니, 수문장은 국가의 정통성을 보위한 첩병. 궐내 흥례문 앞 광장에서 120 명의 군인이 나팔과 북소리에 발맞춰 행하는 교대식엔 위엄과 경쾌함이 함께 한다. 400 년간 지속되다 사라졌으나 최근 15 세기의 무기·장비·복장·양식을 그대로 복원했다. 궁 밖으로 솟아 있는 초고층 빌딩과 번갈아 보는 일이 묘하다.

36

전라남도 장성 - 백양사

= 거대한 바위를 병풍 삼은 사찰을 계곡이 에워싼다. 쌍계루 연못 낮은 물소리 따라 한 스님도 어디론가 흐르는 것일까. 흰 양이 이 사찰 스님의 설법을 들었다 하여 백양사다. 사찰을 품은 내장산은 한국의 8 경으로 꼽힌다. 무궁무진한 것이 숨겨져 있다해 내장(內藏)산이니 사찰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가을 경치만한 무궁무진함 있을까.

37

충청북도 공주 - 동학사

= 한국 사찰은 수행, 기도, 포교 등을 위한 기능별 특징 따라 성장해 왔다. 이에 따라 석굴이나 깊은 산속에도 도량이 있게 마련이다. 천년 사찰 동학사는 계룡산에 있다. 기장 기가 세다하여 유달리 무속인이 많이 찾는 산이다. 절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비구니 전통 강원이다. 비 오는 날 비구니들의 독경 소리에 산사는 한없이 청아해진다.

38

서울특별시 - 성균관

= 한국은 예의 나라다. 다양한 높임말과 세분화된 호칭에 외국인들은 놀란다. 수천년 지배철학이었던 유교의 영향이 크다. 예는 곧 사회질서의 방편이어서, 한때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며 퇴색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화된 요즘, 유교의 재발견이 이뤄지고 있다. 갓을 쓴 연로한 유생의 옷차림에도 엄한 예법이 담겨 있다.

39

전라남도 장성 - 백양사

=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외국인이 적어진다. 종교를 떠나 산사에 머물면서 참선을 하거나 한갓진 시간을 보낸다. 한 새벽 자연의 속삭임과 사찰마다 뱀 전통 문화의 향훈에 찌든 때가 씻긴다. 맑은 남새 음식은 또 어떤가. 전국 38 개 사찰에서 운영한다. 백양사도 그중 하나다. 주지 스님부터 행자, 속세의 못사람이 한데 뒤섞여 자신도 모르게 몸가짐은 단아해진다.

40

경상북도 경주 - 불국사

= 사바에 화현했다 하는 불국토의 세계로 한 노인 지팡이에 기대 들어간다. 남쪽과 서쪽세계를 지킨다는 천왕들은 바라만 볼 뿐. 불국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1600 년 정진과 지혜의 도량이다. 못사람들, 건축물의 예술적 기품에 눈을 땔 수 없으리라. 임란 때 대개 타버리고 재건됐는데, 석가탑과 다보탑, 석굴암이 구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

41

강원도 강릉 - 선교장

= 선교장은 방이 99 칸, 대문이 12 개다. 당대 명문가의 공간에는 항상 곡식이 가득했으니 흉년마다 창고를 열어 이웃에게 베풀었다 한다. 울력으로 직접 밭 디더 곡식 빵는 디딜방앗간, 삼베를 짜는 베틀방도 있다. 목공예방에선 장승이나 여러 목각공예품들을 직접 만들고 있다. 장승은 역병이나 화를 막아주는 수호신이어서 예로부터 함부로 다루질 않았다.

42

서울특별시 - 조계사 수많은 촛불들

= 3~4 세기 전래된 불교는 민간 토착 신앙을 적극 수용하며 교세를 키웠다. 그 결과가 개인의 복을 구하는 ‘기복 불교’이기도 하다. 한국 불교의 특징이다. 한쪽에선 세속적 욕망을 위해 종교를 맹신할 우려가 있다 염려한다. 기독교 내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다. 대표 가람인 조계사에서조차 변함없이 촛불들이 타오른다. 저마다의 정성된 염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3

대전광역시 - 증산도 성소

= 강증산을 교조로 1911년 개창된 민족종교다. 일제 때 700만명에 이르는 구도자가 몰렸다 한다. 독립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증산도는 여타의 신흥종교에 견줘 젊은 신자 비율이 높다. 의사나 대학교수 등 전문직 신도도 많은 게 특징이다. 새로 개벽할 상생의 문명과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을 중시한다.

44-45

충청북도 보은 - 법주사

= 법주사는 533년 창건한 미륵 종찰이다. 도량을 찾으러 왔는데, 불경 실은 말이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다. 담 너머 속리산 아래 우람한 황금색 미륵대불이 세상을 내려다본다. 당초 금동 불상을 조선말기 대원군이 해체해 화폐 주조에 썼다. 다시 금동대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30년이 걸렸다. 다만 33m, 160톤의 무게는 지나친 과시란 비판이 있었다.

46

서울특별시 - 여의도순복음교회

= 한국의 개신교는 불교 다음으로 큰 종교 집단이다. 그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만 75만명에 이른다. 세계적 규모다. 성가대도 장엄하다. 개신교 성장의 사례로 연구, 언급되곤 했다. 방송과 문서를 통한 선교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1988년엔 중앙 일간지도 창간했다. 하지만 부자간 목사직 세습, 불투명한 재정 등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47

경상남도 하동 - 쌍계사

= 한국 불가엔 여성 신도가 대단히 많다. 가정의 안녕을 지극히 바라는 '모성애'가 기복 불교와 어울린 탓도 크다. 최근 여성 불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9%는 불교 신앙이 자신의 불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물론 행복이 자신의 건강, 부만 의미하진 않는다. 이들 중 16%는 사회봉사를 불교 신자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 꼽았다.

48

서울특별시 - 성균관

=국립 교육기관이 직접 유교를 가르친 건 4세기부터다. 여러 형태로 맥을 이어오다, 14세기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0명이 3년 반 동안 사숙하며 인재로 길러졌다. 오늘날도 유교 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산실이길 자처한다.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엄격한 예법에 따라 석전대제를 치른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를 기리는 제례다.

49

경상북도 영주 - 추석 차례상

= 추석은 설과 함께 위없는 고유 명절이다.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로, 8월 한 가운데 들어선 값진 날이 된다. 햇곡식,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강강술래나 가마싸움같은 토속 놀이로 온 마을이 풍년을 축하한다. 현대 사회에선 혈연과 이웃끼리 모처럼 화목을 다지는 날이 된다. 항상 한가위만 같길 소원하며 말이다.

50

서울특별시 - 약현성당

= 약현성당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부활절 미사를 본다. 1892 년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다. 고딕 계통으로 소박하고 번잡한 장식이 없다. 당대 한국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양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에서 주문한 종이 늦어 완공 뒤 5 개월이 되어서야 축성 대미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서울의 신도가 겨우 800 명을 넘겼던 그 시절 숨결부터 품은 셈이다.

51

경상북도 경주

= 산자락마다 돌무더기와 촛불을 마주친다. 젊은이들도 조용히 합장을 하거나, 돌 하나를 었는다. 토착 신에 대한 예다. 한국에선 새해나 중요 시기마다 길흉화복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곳곳에 있다. 젊은이들은 변화가에 있는 산뜻한 장식의 사주 카페를 즐겨 찾는다. 전 국민 4500 만에 역술인만 20 만 명을 웃돈다 하니, 이 또한 한국이다.

52

서울특별시 - 삼일절 행사

= 한·일 경기는 무엇이든 관중으로 넘친다. 응원전도 치열하다. 역사 때문이다. 한국은 1910 년부터 35 년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다. 독립운동과 항전이 끊이질 않았다. 200 만 명이 참여한 1919 년 3 월 1 일 만세시위는 대표적이다.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 나이 17 살이었다. 해사한 10 대 소녀들이 꼭 그이처럼 당시 의복을 갖춰 입었다.

53

경상북도 봉하 - 청량사

= 조선 퇴계 이황은 “청량산을 가보지 않고서는 선비라 할 수 없다”며 극찬했다. 뛰어난 길지라 하는데, 범인들은 타는 듯한 봄 철쭉, 가을단풍에 먼저 냇을 잃겠다. 가파른 절경 속에 파묻힌 절 있으니 청량사. 그조차도 주변 봉우리가 절을 수술삼아 감싼 연꽃 모양이라 한다. 5 층 석탑 앞에서 불공 중인 이 또한 이미 꽃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4

서울특별시 - 조계사 연등행사

= 이제 국민 축제로 승화된 연등행사는 1500 년 유서를 간직한다. 부처님 오신 날마다 서울서만 10 만여 오색등이 불 밝혀져 어둠 없는 세상을 갈구한다. 해마다 5~6 세 사내아이들이 말갭게 삭발하고 가사장삼도 걸친다. 단기출가한 동자승이 봉축 분위기를 돋운다. 불가에선 어린이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라고들 한다. 천진난만함이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이다.

55

서울특별시 - 여의도순복음교회

=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이정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부활절 예배가 장대하고 엄숙하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한국서도 부활절은 중요한 행사다. 특히 진보·보수계 교단이 아우러진 연합예배가 수만 명 신도가 운집한 가운데 여러 도시에서 열린다. 이날 헌금은 북한에 보내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이곤 한다.

57

강원도 속초

= 서쪽으로 솟아 있는 설악산 산세가 급히 꼬리 내리며 동해와 닿는다. 천혜의 항구도시 속초다. 외국인 손님만도 한 해 40~50 만 명. 철새가 찾는 호수, 청초한 해수욕장, 저 멀리 설악산까지 둘러보려면 주말이 짧다. 어귀마다 즐비한 식당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로 허기도 달랜다. 저 멀리 속초의 상징인 엑스포타워가 보인다.

58

강원도 영월 - 저새마을

= 세월도 가길 마다할 듯한 벽경 저새마을. 이 마을 ‘청령포’는 삼면이 강이고 뒷면은 산이다. 왕조시대 타고난 유배지로 꼽혔다. 그렇기로서니 삶이 없지 않다. 이 마을 젓줄 동강은 이제 명물이 되어 되레 유명세를 치른다. 생태계가 기막히게 보존된 경승지라 그렇다. 동강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마지막 강마을, 저새마을이 나온다.

59

경상남도 남해 - 다랑논

=산비탈을 깎아 돌을 쌓고 층층이 논을 냈다. 남해의 다랑논이다. 이제 다른 곳선 볼 수 없는 쟁기가 필수다. 말인즉, 농군의 땀이 곧 낱알이 된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가 9 할이다. 식사 때 머문 곳이 바로 밥을 먹는 곳이다. 이젠 외국인들이 찾아와 논일을 체험하는 풍경도 그리 낯설지 않다. 척박한 자연과 어울리며 일군 삶의 터전이 관광 명승지가 되었다.

60-61

☞ 강원도 강릉 - 시골 농가

= 반도체와 냉장고, 에어컨 등 첨단기술이 세계 최고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다. 이 땅의 농군은 수천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우직한 신념으로 살아왔다. 대개 소규모 농사꾼이다. 자연 앞에 그렇게 순응하고 겸손해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이런 이들은 줄어든다. 10 년 전 446 만 명의 농가 인구가 330 만 명이 됐다. 전체 인구의 7%가 안 된다.

62-63

● 좌우/ 전라남도 신안 - 태평염전

= 1953년 작은 섬, 증도에 조성된 염전. 여의도 두 배로 국내 최대 규모다. 하루 1만 5천여 톤을 생산한다. 전국 치의 5%다. 질 좋은 갯벌 덕에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품질을 높게 친다. 한국의 시인은 소금을 '바다의 눈물'이라 노래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오후와 새벽 반복되는 채취 작업은 고되기만 하다. 이들의 땀과 눈물이 소금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64

☞ 좌 / 경상남도 하동 - 하동화력발전소

= 이 발전소가 2001년 들어서며 저 너머 주변 어장은 황폐해진다. 정부는 어장을 끼고 있는 대도섬 주민들에게 어업권 소멸보상금 150억 원을 줬다. 당장 나눠 쓰자는 주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은 오랜 논의 끝에, 2008년 1월 보상금 전부를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기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57가구가 2억 원 넘게들 포기한 것이다. "후대를 위해서"란 말이 단연 화제가 되었다.

65

경상북도 청도 - 운문사

= 운문사는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이다. 경내 전체가 어느 절보다 정결하고 청아하다. 13세기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운문사보다 더 유명한 소나무가 500년 숙결을 또한 이어간다. 해마다 4월이면 비구니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막걸리로 목을 적신다고 한다. 천연기념물. 더불어 사는 삶은 언제나 귀하다.

66

경상북도 안동 - 하회마을 모내기

= '품앗이'란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다. 모내기나 추수 때마다 돌아가며 힘을 보태 마을 농사를 최대치로 이끈다. 도움을 도움으로 갚는 일종의 교환 노동이다. 하지만 농가가 줄며 이러한 활기도 많이 사라진 듯 하다. 대학생들이 농번기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러 각 지역 농촌을 찾는 봉사활동도 활발했는데, 이조차도 무장 퇴색되어 간다.

67

전라남도 완도 - 보길도 전복양식

해거름 보길도가 붉게 물든다. 통째가 해상국립공원일 만큼 풍광이 수려하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평야가 드문 섬은 척박한 터전일 뿐이다. 양식업은 이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다. 특히 맛좋은 전복이나 김이 이 고장을 먹여 살린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2500여명이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며 전국 치의 8할을 생산한다. 매년 선달 풍어와 마을의 화평무사를 기원하는 제의가 이어진다.

68

● 좌 / 경상북도 경주 - 수학여행

= 유채꽃밭이 노란 바다인 양 일렁인다. 그곳에 몸을 담은 여학생들이 여유롭기만 하다. 하지만 한 매그넌 작가는 한국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즐거움을 포기한 채 공부에만 매진하는

광경에 놀랐다고 했다. 초·중·고등학생은 한차례씩 수학여행을 떠나 견문도 넓히며 모처럼 신나는 한때를 보낸다. 천년 고도 경주는 빼놓지 않는 수학여행지다.

69

경상북도 울진 - 핵발전소

=한국의 핵 발전력은 세계에서 6 번째로 크다. 4 개 지역에 모두 20 호기의 원자력발전이 있다. 이들이 국내 전력의 절반가량을 만들어낸다. 특히 울진발전소에선 독자 개발한 한국 표준형 원전도 가동 중이다. 중국 등지 여러 국가로 수출되는 원전 기술이 되었다. 북한 원전의 모델이기도 하다.

70

상하/ 경상북도 청도 - 운문사

=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운문사 비구니들이 수행 지침으로 따르는 백장청규다. 전통적인 비구니 도량이다. 여전히 260 여명의 비구니들이 학문을 익히고 계율을 받들어 따른다. 가장 많은 수도. 조계종 출가 스님 1 만 2 천여 명 가운데 비구니는 절반에 이른다. 하지만 종단의 중책은 대개 비구 몫이다.

71 위

경상남도 사천시 - 삼천포 생선 직매, 출하

= 일대의 어부들이 밤새 잡아온 물고기들을 하역하거나 말리느라 새벽 항구는 바빠진다. 삼천포항이다. 신선한 생선을 사겠다고 주변 도시 상인이나 주부, 난땃손님까지 몰리더니 자연스레 장도 생겼다. 40 여년이 그렇게 흐르며 서부 경남의 중심 어시장이 됐다. 대개 아주머니들로서, 이곳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300 명을 넘는다.

71 아래

경상북도 영주 - 풍기 인삼

= 풀이 사람을 닮았다 해 붙은 이름, 인삼. 모두 6~7 종 되는데, 그중 세 종류만 상품으로 유통된다. 단연 약효가 뛰어난 한국 인삼이 세계 시장의 49%를 차지한다. 점유율 1 위. 인삼 생육의 최적지로 꼽히는 지리적 환경에서 4~6 년 정성이 더해진다. 다른 이름, 고려인삼이다. 효능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6 년근’만 재배·가공하는 풍기 인삼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72-73

경상남도 사천 - 삼천포항

= 뱃일이 고되니, 노래를 부르며 그물을 올렸다. 풍어를 기원하기도 한다. 저마다 지역 타령이 그렇게 이어져온다. 하지만 외지인들에겐 낭만과도 같다. 낚시를 즐기는 이들만 400~500 만 명으로 가늠되는데, 주말마다 고깃배를 빌려 앞바다로 나가곤 한다. 이젠 인공위성까지 이용해 고기 잡는 시대라 하니, 애환 짙은 뱃사람들의 노랫가락도 하나둘 사라질지 모르겠다.

74-75

경상남도 통영 - 항구

= 통영은 예로부터 남해안의 해상 요충지였다.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다. 해군의 최고사령부 격이다. 천생 바다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농사에 적합하지 못한 임야가 대부분이다. 논이라 해봤자 전체 면적의 8% 안팎. 대신 전복·소라껍질은 색과 모양이 기미해 특산물 '통영 나전칠기'를 탄생시켰다. 독창적 공예법이 400년 이어져오고 있다.

76

전라남도 완도 - 김양식

= 한국은 15세기부터 김 양식을 해왔다. 해조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서구와 달리 일찌감치 그 맛과 영양을 채득해왔던 것이다. 참기름 발라 살짝 구운 향내에 밥 한 그릇이 푹딱 사라지니 '밥도둑'이라 할 법한데, 완도 김은 그 가운데서도 일품이다. 외국에선 수많은 한국의 김 요리 가운데 이제 겨우 김밥에 낫익어간다.

77

부산광역시 - 자갈치시장

=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래 어시장, 자갈치시장. 130여년 전 개항한 곳에 서서히 장이 형성됐다. 자갈밭이 넓게 깔려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활어만 거래하는데 자갈치라는 어종이 많아 붙은 이름이란 얘기도 있다. 날마다 300여종이 꿈틀꿈틀 새벽녘 시장에 들어선다. 외국인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됐다. 해마다 10월이면 자갈치축제로 시장은 들썩인다.

78

부산광역시 - 송정항

= 부산 송정항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을 만날 수 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간단한 어구로 바닷속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캔다. 물론 호미 같은 어구가 전부다. 이들은 물질로 돈을 버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른다. 산업화 시대, 고되기만 한 물질을 생업 삼는 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79

부산광역시 - 송정항

= 송정항은 화려한 시내 불빛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해맞이도 근사하다. 양쪽 방파제에서 서로를 비추는 쌍둥이 등대는 부산 정취를 아름답게 뽐어낸다. 빨간색·흰색 등대로 특히 신혼부부가 사진 촬영하러 자주 들른다. 그렇다 한들, 해녀들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일까. 길게 호흡을 참아내고, 때론 잠수병까지 앓으며 평생 가족들의 삶을 건사해내는 그들이다.

80

강원도 인제 - 용대리 황태덕장

= 마을 곳곳서 명태 말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추운 겨울, 얼다 녹기를 반복하며 말리는 더디고 고된 방식. 용대리 황태는 본래 추운 고장 출신인 함경도 이북민들이 해먹다 퍼졌다. 밤 평균기온이 두 달 넘게 영하 10 도로 내려가니, 걸자마자 얼어 담백한 육질 그대로다. 1 월 초부터 세달 가량 말리면 노르스름한 황태가 태어난다. 눈과 바람, 햇빛을 머금고 포동포동 살이 오른 채.

81

경상북도 영덕 - 오징어덕장

=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반기는 술안주 가운데 하나가 마른오징어다. 여전히 바닷가 곳곳에서 전통 덕장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 영덕에선 덜 말린 오징어를 즐겨 먹기도 한다. 불에 구워 먹으면 말랑말랑한 육질에 혀를 내두른다면서 말이다. ‘피데기’라 이르는 사투리가 어느새 반 건조 오징어를 가리키는 표준어가 되어간다.

82-83

☞ 부산 - 자갈치시장

= 자갈치시장에선 생선만 살아 뛰질 않는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손님을 붙잡는 경상도 ‘아지매’들의 억척스런 생활력이 함께 생동한다. 이곳을 부산 사람의 특징과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축도’라 하는 까닭. 부산 시민의 웃음과 애환도 뒤섞인다. 아주머니들의 질박한 인심과 손님들의 벅적대는 흥정 소리에 시장마저 파닥거릴 듯하다.

84

전라남도 보성 - 벌교 갯벌 조개잡이

=벌교 갯벌은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다. 7.5 km<sup>2</sup>에 걸쳐 고막, 게, 굴, 짱뚱어 등이 꿈틀댄다. 마을 사람들에게겐 삶을 영위하는 터전. 아낙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펄에서 수산물을 캔다. 세월이 멈춘 듯, 예전 방식 그대로다. 종종 고단함을 달래려는 노랫소리 들린다. ‘펄 썰매’를 타고 멀리멀리 펄이 허락하는 곳까지 나간다.

85

경상북도 포항 - 청어잡이

= 포항 청어는 조선시대 왕에게 보내지던 음식이다. 하지만 그보단 포항 과메기의 원조란 사실이 더 친숙하다. 살만 발라 겨울 바닷바람에 말린 청어를 마늘과 함께 초장에 찍어 먹었다. 투박하지만 구수한 맛은 잊기 어렵다. 이제 과메기는 전부 콩치로 만든다. 맛도 영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청어가 잡히질 않으면서 바뀌었다. 이날 밤 어부들은 청어 8톤을 잡았다.

86

서울특별시 - 홍대 주변 술집 바텐더

= 한국서 ‘홍대 가자’는 말은 특정 대학을 가자는 말이 아니다. 카페가 많다. 세련되고도 포근한, 이곳만의 분위기를 달리 설명할 길 없다. 출판사가 많아서일까. 어떤 카페는 변화가에서 한발

물러나 주택가에 덩그러니 자리해있다. 서넛 테이블이 전부인 곳도 꽤 된다. 최근엔 와인바가 크게 늘었다. 흥대가자는 말이 어느새 와인 마시러 가잔 말이 되어간다.

87

경기도 이천 - 닥인형, 시골 장터 밥상 재현

= 한국인은 음식 섭생에 있어 신토불이를 상당히 중시한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인데, 자기가 사는 땅에서 길러낸 농산물이 제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사고방식이다. 어느 식당에 시골 장터의 식사 풍경이 모형으로 꾸며져 있다. 작은 모형 하나가 한국의 토속적 정취를 고스란히 담았다.

88

경상북도 영주 - 추석 차례상 준비

= 추석이나 설 차례상을 차리는 일은 만만치 않다. 조상께 바치는 음식이라 비늘 있는 어류나 고춧가루·마늘 양념도 쓰지 않는 등 전통적 격식을 따랐다. 저마다 의미를 담아 올리는 음식만도 30 가지 안팎. 가령 3 알이 한 송이가 되는 밤엔 영의·좌의·우의정이 가문에서 나오라는 바람을 담는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하고 음복하는 일은 그 바람을 나눔이기도 하다.

89

경상북도 영주- 더덕 깎는 할머니

= 지역의 길목마다 5 일장이 들어선다. 전국적으로 300 곳 안팎에 이른다. 영주에서만 영주장, 소천장, 풍기장 세 개가 열린다. 1-6, 5-10, 3-8 일에 들어서니 장날이, 아닌 날보다 많다. 5 일장만 찾아다니는 장돌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캔 더덕(도라지?) 몇 뿌리를 내다파는 할머니도 있다. 저마다의 인생 역정에 먼저 눈길 가닿는다.

90-91

좌우 / 경상북도 영주 - 재래시장

= 덩이라는 한국말이 있다. 정량보다 더 준다. 에누리란 말도 있다. 손님 따라 값을 깎아준다. 누군가는 비합리적이라 할지 모르나, 한국인은 정이라 말한다. 시골장서 쉽게 마주치는 풍경이다. 그 묘한 흥정 맛에 애써 장터까지 먼길 마다지 않는 도시인들도 적지 않다. 대규모 지역장은 온 동네 소식이 오고가고, 흥에 한껏 부푼 축제나 다름없다.

93

경상북도 경주 - 유치원생

= 최근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며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여성 1 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아기수가 2006 년 1.13 명이다. 미국은 2.13 명, 영국 1.64 명, 프랑스 1.89 명, 일본은 1.33 명이였다. 십수년째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농어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부담, 과잉 경쟁 사회 등에 대한 우려가 한 배경이 된다고 설명한다.

94

경기도 시흥

어린이들이 온몸에 물감을 묻혀가며 밝게 웃고 있다. 한 어린이 미술교육 업체가 창안한 교육 방식이다. 음식재료를 씻고 조리하거나, 색에 자유분방하게 노출되면서 오감이 자극받는다. 표현력과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선행 학습 위주의 판박이 교육에서 벗어나, 감각과 감성을 계발하려는 부모들의 노력이 최근 많아지는 추세다.

95

서울특별시 - 한예종

= 국가가 전문·직업적 예술가를 길러내기 위해 1993 년 문을 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연극·영상·미술·전통예술·음악·무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저히 실기 위주 학습이다. 그간 예술교육이 예술인과 교육자를 세련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연혁은 짧으나 이 학교 출신의 발레리나, 연주자, 배우, 감독 등은 국내외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96

서울특별시 - 청담동 고등학생

=한국의 고교생들은 거개 교복을 입는다. 한동안 사라졌다 1990 년대 초 부활했다. 여전히 짧은 머리만 강제하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통통 튀는 이들에겐 교복마저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 길이나 품을 줄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조차 유행을 타면서 또 하나의 '획일화된 교복'이 되기도 한다. 하루하루 좀더 규범화하려는 교사들과 이를 피하려는 학생 사이 전쟁이 치러진다.

97

강원도 횡성 - 민족사관고

= 한국의 가혹한 입시 경쟁은 전 세계에 유명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명문 8 개 대학 합격률(2006 년 기준)을 조사했더니, 16%에 이르는 민족사관고가 미국 고교가 아닌 외국 고교로는 예외적으로 8 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개교한 지 이제 갓 10 년을 넘겼을 뿐이다. 또 다른 한국의 고등학교도 23 위에 올라있었다.

98 위

대전광역시 - 카이스트

= 키 120cm. 부드럽게 몸동작을 짓는 41 개의 관절. 1 분 65 걸음.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교수 연구팀이 2004 년 12 월 탄생시킨 인간형 로봇 후보다.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간형 로봇 '아시모'처럼 뛰거나 계단을 오르진 못한다. 하지만 기간과 개발비용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다. 시각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 3 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98 아래

서울특별시 - 이화여대

= 조선이 갖 근대화에 접어들던 1886년 단층 한식 기와집이 세워진다. 3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기독교 정신 아래 시작된 이화여대다. 유서가 가장 화려한 여대다. 고딕건축양식을 토대로 동서양 고전미를 조화시킨 교정은 아름답다. 120여년 동안 이곳을 졸업한 여성들이 사회 각층에서 활약한다.

#### 99 위

서울특별시 - 한예종 미술원

= 15년도 안된 한예종이 지금까지 배출한 나라안팎의 유명 콩쿠르 입상자는 280여명에 이른다. 자유로운 선발방식으로 가능성 있는 학생을 추리고, 실기 분위의 교육으로 그 가능성을 현실화한 덕분이다. 미술원은 파격적으로 입학시험 때 검은 석고상을 그리게도 했다. 2007년 중국 등 20여개 나라에서 온 60여명의 외국인 예술영재도 함께 교육받는다.

#### 99 아래

강원도 횡성 - 민족사관고

= 멀리 보이는 민족사관고는 사뭇 조선시대 유생을 가르치던 서원을 닮았다. 실제 기숙생활을 하는 전교생들은 전통 한복을 입는다. 국궁을 필수로 이수하고, 전통 음악 등의 예기도 함께 익힌다. 영어를 생활화하고 대학 과정까지 미리 이수한다. 공부뿐만 아니라, 예절과 윤리 등을 강조하며 전인교육에 무게를 둔다. 전국의 우수 중학생이 입학할 다투는 이유다.

#### 100-101

서울특별시 - 신촌 뒷골목

= 넓은 하숙집과 여관, 그리고 카페나 식당이 마냥 너저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일대 유서가 깊은 대학들과 함께 시대를 나며, 곳곳에 옛 추억이 서려있다. 몇 걸음 밖 변화가에선 갈수록 화려해지는 네온사인에 들쭉인다.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소설가는 “골목은 날로 네온 불빛으로 휘황해져간다”며 이 뒷골목에 “어둠의 역사를 돌려주고 싶다”며 읊기도 했다.

#### 102 위

충청북도 청원 - 검도, 공군사관학교

=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검도를 익히고 있다. 검도는 살상보다 심신 수련을 위한 교육 기제다. 중국 고전에는 “신염인용(信廉仁勇)이 없이는 검을 논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다. 문서에 남은 가장 오래된 검법은 고대 한국의 것이다. 3~4세기로 추정된다. 근대에 들어 일본은 스포츠 검도를 탄생시켰다. 공히 동양의 정신세계가 빚어낸 무예다. 50만여 명의 한국인이 검도를 즐긴다.

#### 102 아래

서울특별시 - 서울대 의대

= 서울대 의과대 수업 풍경이다. 고교 성적이 뛰어난, 소위 공부벌레들의 집합소다. 194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한국의 의학 발전을 이끌어왔다. 오랜 기간 동안 체계를 다져온 고유의

한방학과 함께 말이다. 이제 한국의 의대는 종종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만 여겨지곤 한다. 수험생이 의대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03 위

서울특별시 - 이대 연구실

= 2005~06 년 한국은 '과학 윤리 논쟁'으로 지축이 흔들렸다. 개, 소, 양 등의 생명 복제로 세상을 놀랬던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논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면서다. 배아 복제를 위해 여성 난자를 채집한 방식 등 여러 윤리적 결함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성장·실적주의 일로의 한국 과학계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이화여대생들이 실험에 열중하고 있다.

103 아래

경기도 여주 - 불상 조각

= 불교 미술가로 명망이 높은 목아 박찬수가 사재를 털어 이 박물관을 세웠다. 한국의 불교 미술과 전통 목공예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1996 년 목아박물관은 목조각 분야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여러 문화유산과 현대적 불교 작품들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옛 것에 새 것을 더해 버리고, 계승되는 공예기술은 또 다시 새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104

서울특별시 - 여대생

= 1970 년대만 해도 한국 여성 가운데 대졸자는 1.7%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80%를 웃돈다. 한국팀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컵을 따오는 경우는 대개 여성이다. 창의적이고 자신감이 넘쳐난다. 이 사진의 작가는 자신이 만난 한국 여성이 대단히 친절하고 사고 또한 열려있었다고 말했다.

105

서울특별시 - 대학졸업식

= 요즘 한국에서 졸업식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취업난 탓이다. 2007 년 졸업생 56 만 6 백여명 가운데 76%만 취업했다. 그나마도 56%인 29 만 9 백여 명만 정규직이다. 4 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8%로 또 떨어진다.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취업 공부에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낭만도, 사회의식도 속절없이 내몰린다 하여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106

서울특별시 - 결혼식

= 선인들은 결혼을 인륜 도덕의 시원, 만복의 근원이라 했다. 수백 년 이어져온 전통 혼례식이 이젠 드물다. 하지만 관혼상제 가운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역술가를 통해 결혼 기일을 고르기도 한다. 서구식으로 결보매만 바뀌었을 뿐, 예법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대로 삼가 진행된다. 결혼식의 꽃은 신부가 된다. 두세 시간 단장은 예사다.

107

부산광역시 - 해운대

= 부산 해운대는 온갖 축제와 이벤트의 무대다. 그 가운데 으뜸은 부산국제영화제. 1996 년 여기서 영화제가 기획됐을 때 이렇게 빨리 성장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멀다않고 반도의 끝으로 달려가는 관객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파도 소리 배경 삼아, 해 저문 바닷가를 수놓는 개막작의 은빛 영상을 잊지 못해서일 것이다.

108

서울특별시 - 돌잔치

= 아이의 첫 생일잔치다. 전통적인 돌잡이 행사로 절정에 이른다. 활이나 붓 따위 여러 물건을 두고 아기가 직접 고르게 해 미래를 점친다. 쌀·돈을 쥐면 부, 실·국수는 장수, 책은 학문적 성취를 얻을 것이라며 축복했다. 옛날엔 오전 11 시 전에 되도록 행사를 치렀는데, 만물이 활성화하는 때로 보았기 때문이다.

109

부산광역시 - 해운대 데이트

= 피서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 바로 해운대다. 1.8km 펼쳐진 백사장을 만난다. 물결이 잔잔하고 맑은 날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첫손에 꼽히는 해수욕장이다. 신라말 석학 최치원이 달맞이고개 일대의 절경에 심취해 자신의 아호를 바위에 새겼다. 해운대였다. 단연코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높다. 한겨울에도 폭죽을 터뜨리며 해변의 밤을 밝히는 이 적지 않다.

110

경상북도 경주 - 안압지

= 통일신라 왕궁의 드넓은 정원, 안압지.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한다. 1970 년대 중반 발굴조사를 통해 그 위용이 드러났다. 당대의 섬세한 기술과 우미한 예술 세계가 돋보인다. 특히 연못엔 변화무쌍한 굴곡을 주어 어디서도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없게 했다. 좁은 연못을 바다처럼 느끼게 하려는 예지라고들 설명한다.

111

서울특별시, 전통혼례

= 한국에서 최초의 서구식 결혼식은 1890 년 교회에서 치러진 것이라 한다. 전통 혼례의 관습이 빠르게 사라졌으나 함이나 폐백은 계속 이어진다. 부러 전통 혼례를 찾기도 한다. 과정에 담긴 정갈한 의미들 때문이다. 함은 결혼을 허락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신부 쪽에 예로써 건네는 예물이다. 신랑 친구들이 전하는데, 축하 분위기를 돋우는 결혼 전야제와 같다.

112

서울특별시 - 셀카 찍는 여성

= 한국은 휴대폰의 나라다. 지하철에선 대부분의 승객이 제 휴대폰만 쳐다보는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인터넷도 한다. 보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정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들로 꾸민다. 식당에서 여기저기 요리를 찍는, 극히 한국적 풍경도 이 때문이다.

113

서울특별시 - 회사원

=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을 거치며, 평생직장이라 여기던 데가 사라지거나 직원을 내쫓았다.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며 웃음을 잃은 직장인도 늘었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 보유율(95%)이 미국(40%)의 두 배를 넘었다. 저들의 환한 웃음은 그래서 낯설었으나, 그들이 꿈꾸는 미래조차 낯설 리 없다.

114

강원도 강릉 - 정동진

= 산마루에 배를 개조한 카페가 올라서 있다. 작은 바닷가 마을, 정동진이다. 수많은 연인들이 이곳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고, 모래사장에서 해돋이를 보길 원한다. 1962년 팔내밀면 달을 듯 바닷가를 옆에 두고, 기차길과 역사가 들어섰다. 바다와 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짧다. 망망대해로 흩어지는 열차의 경적 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운치 있다.

115

서울특별시 - W 호텔, 세밀 연인

남녀차별이 강조된 유교 관습에 따라 오랜 기간 자유연애도 금기시됐다. 여성에겐 순종이 미덕이라 교육되었다. 지금은 상상조차 어렵다. 연애방식은 물론 결혼관도 급변한다. 미혼 남녀들은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이나 교사직을 가장 선호한다.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들이 이들 직업만 지나치게 쫓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116

광주광역시 - 광주국립묘지

= 군사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과 계엄군이 맞선 거리에서 총성이 울린다. 1980년 5월 18일. 10일 만에 시민 4254명이 숨지거나 다친다. 무차별 살상에 시민군까지 결성해 저항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손수레에 실려와 묻혔던 망자들이 1997년 성역화사업을 통해 비로소 이곳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된다. 5·18 민주묘지는 광주 시민에겐 숨진 자식이고 형제다.

117

대구광역시 - 신혼 부부 결혼 촬영

= 주례 없는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이색 공간을 찾는 신세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허례허식도 커진다. 2007년 312쌍의 신혼부부들은 한 조사에서 평균 결혼비용으로

1억 7천여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결혼식에만 1240 만원을 썼다고 한다. 이들의 3 할은 결혼식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과소비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118

대구광역시 - 고희연

= 동양에선 일흔살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나이라 했다. 동시에 대단히 드문 나이라 하여 고래로 각별히 떠받들었다. 예순 잔치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접하는 가장 큰 생일상이었으나, 점차 칠순 잔치로 옮겨진다. 수명이 길어진 것이다. 핵가족 시대라곤 하나, 이날만큼은 친인척이 대거 모여 장수를 축복한다.

119

서울특별시 - 약현성당

= 천주교는 유입될 당시 신학문이기도 했다. 모순된 사회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서 17 세기부터 적극 탐구되었다. 기득권의 거센 탄압과 박해를 받은 건 어찌면 당연하다. 수많은 신자가 순교했다. 2 세기 흐른 1886 년 프랑스와 수호조약을 맺으며 전교의 자유가 허락됐다. 한국 사회와 이렇게 조우하면서 천주교는 이례적으로 제사도 인정한다.

120

경상남도 합천 - 전통 장례식

= 부모가 숨지면, 자식은 가까이 움막을 짓고 3 년간 산소를 돌봤다. 호상일지언정 불효라며 찢값을 치른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몇백년 전까지만도 이어지던 관습이다. 옛 장례는 또한 한 마을이 같이 치르는 의식이었다. 상여를 매고 장지로 가는 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동행해 망자의 외로움을 덜었다. 대부분 간소화됐으나, 여전히 그 풍습을 이어가는 마을들 있다.

121

서울특별시 - 탑골공원

= 탑골공원은 서울에선 드물게 도심 한가운데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시가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적공원으로 오래전 재정비했다. 이제 노인들의 쉼터가 됐다. 담소를 나누고 장기 따위 놀이를 함께 즐기는 만남의 장소다.

122

서울특별시 - 현충원

= 국가유공자를 안치하는 묘지공원이다. 해방과 함께 군이 창설된 이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사자가 생겨났다. 한국전쟁 때문에 더욱 필요해진 묘지를 1953 년 이곳에 확정했다. 경찰, 애국지사, 최근의 소방공무원까지 안장 대상을 꾸준히 넓혀 왔다. 국가유공자의 위훈을 계승·보존하는 겨레의 성지인 샘. 6월 6일을 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그들의 뜻을 기린다.

123

경기도 파주 - 임진각

= 이념 대립의 세계정세 탓에 해방 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린다. 고향을 가지 못한 이들이 생겼다. 어떤 이는 체제나 가족을 좇아 남으로 북으로 오고갔다. 이제 반세기 넘어 고향은 꿈에서조차 아득해진다. 1999년 1천만 명이던 실향민은 7년 뒤 7백 7십만 명으로 줄었다. 누군가 그리울 때마다 멀리 북이 보이는 임진각을 찾아 눈물을 흘리는 이들 있다.

124

서울특별시 - 삼성빌딩

= 혹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일지라도 삼성을 모르긴 어렵다. 반도체와 휴대폰, TV, LCD, 백색 가전 등 첨단 산업을 이끌며 초일류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십년 만에 일군 기적과 같다. 삼성그룹의 매출액은 140조원 안팎. 한 나라로 친다면, 세계 35위 안팎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 된다.

125

서울특별시 - 탑골공원 노인

= 65살 이상 노인 비율이 2000년 7%였다. 19년 뒤엔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될 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셈이다.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한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수명 연장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한국은 옛날부터 경로효친이 생활화되어 왔다. 이제 노인 복지·여가 문화·고용 확대 등의 제도적 배려가 더 필요한 때다.

126

충청남도 보령 - 젊은 여성

= 한국 여성들은 외모나 패션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2007년 한 언론사의 조사를 보면, 여대생의 87%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직접 하고 싶다는 이도 65%가 넘었다. 이들의 절반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입소문이 어떤 영화를 흥행시키거나 내려앉히고, 또 어떤 브랜드를 단숨에 띄운다.

127

강원도 영월 - 저새마을

= 영월은 강과 산의 마을이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지 않으면 세상과 만날 수 없다. 눈이나 비가 오면 더 쉽게 고립된다. 저새마을도 여느 오지처럼 젊은이들은 도회지로 떠나고 늙은 부부가 지킨다. 명절 때 찾아오는 자식 가족을 보려면 다시 또 1년 추억만 되새김해야 할 것 같다. 산과 들, 강이 벗이 되어줄 뿐이다.

128-129

좌우 / 서울특별시 - 종군위안부 할머니 수요일 정기모임

=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 노쇠한 여성들이 모여든다. 뺏속 파고드는 추위일지언정 예외가 없다. 1992년 초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정기 집회다. 일제의 의해 전선으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종군위안부 여성들. 집회에 동참했던 많은 이들이 한 많은 세상을 등졌다. 시위가 세기를 넘길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130

없음

131

광주광역시 - 광주비엔날레

=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의 상징이다. 어떤 이들은 ‘광주 정신’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유구한 문화유산이 도도히 흐르는 호남의 심장부다. 이러한 전통을 예술로 승화하려고 1995 년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했다. 미술·문화 교류의 소외 지역이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자리 잡아간다.

132

비보이

= 가면을 쓴 비보이들의 공연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2002 부터 각종 세계대회를 휩쓸며 비보잉은 또 다른 한국적 문화로 거듭났다. 기량뿐 아니라 창의력이 발군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연희에선 박자와 흥이 중시되어 왔기에 특징이 발휘된단 분석도 있다. 실제 민족 고유의 탈춤 따위와 섞어 만든 새 기교와 분위기로 세계 춤꾼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133

경상북도 안동 - 하회탈

= 하회탈은 한국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탈놀이 가면이다. 12~13 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가면은 종이나 바가지로 만들고 놀이가 끝나면 태워버리는 유속이 있다. 오동나무에 옷칠을 더해 만든 하회탈은 그래서 더 희소가치가 있다. 차별이 견고한 계급 시대, 웃는 탈 안에는 천민의 원통한 표정이 가려져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34-135

서울특별시 - 전통춤 // 삭제된 문장도 있음

= 한국의 춤은 형용하기 어렵다. 유명한 시인(조지훈)이 ‘승무’라 이르는 전통춤을 시로 그리기까지 18 개월이 걸렸다 한다. 구상한 지 11 달, 집필한 지 7 개월 만에 겨우 15 행의 시를 완성했다. 춤의 외면에 치중하면 혼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고, 혼의 흐름에 치우치면 춤의 묘사가 죽기에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한복의 고운 선과 자태는 마치 그러한 춤을 위해 맞춤된 듯하다.

136-137

☞ 경기도 안성 - 중앙대 예술대

= 중앙대학교는 예술 계열이 특히 발달했다. 연극영화과가 4 년제 대학의 전공학과로는 처음 생겼다. 연극관련 석박사 과정도 처음 생겼다. 문예창작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사진학과,

무용학과, 서양화학과 등 10 개의 학과로 구성된 예대는 개성과 낭만으로 가득하다. 1959 년 이래 수많은 예능인과 연예인을 배출해왔다. 전공 수업에 열중인 이 학생들도 그를 꿈꾼다.

138-139

● 서울특별시 - 이대 무용학과

= 무용학과가 처음 생긴 곳이 이화여대다. 1963 년부터 예술가는 물론, 교육자, 이론가 등을 배출했다. 여러 민족이 그러했듯, 한민족도 춤과 노래를 즐겨왔다. 민족의 특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꽃 사이를 소리 없이 오가는 나비의 몸짓처럼 부드럽고도 다채롭다. 현대 무용도 전통춤을 기반으로 하여 풍부해질 것이다.

140

☞ 좌 / 서울특별시 - 대학로 무대 뒤

= 영국에 웨스트엔드, 미국에 브로드웨이가 있다면 한국엔 대학로가 있다. 일대 50 여 개의 소극장과 수백여 개 카페가 운집해 있다. 저녁마다 크고 작은 연극, 뮤지컬, 콘서트가 펼쳐진다. 거리 공연은 덤. 대학 주변이어서 젊은이들이 몰리고 자연스레 문화지대가 형성되었다. 내일은 화려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단역들이 오고가며 오늘 하루 자신을 불사른다.

141

서울특별시 - 명동 드레스카페

= 한국은 코스프레 문화가 크게 발달하진 않았다. 개성적인 한편,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내재한 탓도 있다. 대신 젊은이들은 드레스카페를 즐겨 찾곤 한다. 1990 년 말 들어 퍼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데이트를 즐기는 공간으로 애용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블로그 꾸미기를 좋아하는데 그를 위해 찾는 이도 많다. 사진 속 여인은 중세 조선의 기녀로 둔갑했다.

142

☞ 좌 / 서울특별시 - 명동 드레스카페 한국 여성

= 2007 년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여성의 62%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답했다.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서 다져졌던 보수적 성역할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2007 년 행정고시 합격자의 절반, 외무고시의 68%가 여성이었다. 5 명중 1 명은 여의사다. 이들은 능력 개발은 물론, 외모나 건강관리, 취미까지 무엇 하나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143

서울특별시 - 대학로 무대 뒤

= 대학로는 기초 예술의 산실이다. 하지만 이들 배우나 스태프의 월급은 상당수가 100 만원이 되질 않는다. 식당일 같은 가윗일로 생계를 보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대 공연은 영화만큼 대중적이지 않다. 하지만 한 나라 예술 문화의 가늠자가 된다. 배우는 한잔 술과 관객의 갈채로 힘을 얻고, 다음날 흘린 듯 무대에 오른다. 그렇게 대학로의 공연도 끊이지 않는다.

144 위

서울특별시 - 종로 서울극장 시사회

= 한국의 영화 두 편이 2004 년 연이어 관객 천만을 돌파했다. 국민 넷 중 한 사람이 그 영화를 본 셈이다. 90 년대 중반부터 자본이 몰리고 멀티플렉스도 늘어난 덕이다.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 자국의 영화 점유율이 50% 안팎에 이르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최근 다시 줄고 있다. 관객도, 감독도, 배우도 새 영화로 꿈을 꾸다. 하지만 모두가 그 꿈에서 달콤하게 깨진 않는가 보다.

144 아래

서울특별시 - 그리스 뮤지컬 뒷무대

= 어느 뮤지컬의 뒷무대다. 뮤지컬이 최근 대중문화 장르로 활짝 꽃핀다. 2000 년대 들어 선도적 작품들이 대중을 끌어 모으자,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자신들의 인기와 능력을 시험하는 새 무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들이 관객을 모으고 이런 분위기가 다른 스타들을 또 부른다. 2005 년 한 뮤지컬 오디션에는 1,100 명이 몰려 화제가 됐다.

145 위

서울특별시 - 영화 시사회

= 1997 년도 이후 영화 관객 수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07 년 그 추세가 멈췄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화는 한국 문화 산업의 종주다. 새 영화가 나올 때마다 수백 명의 보도진이 몰린다. 외국 영화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첫 시사회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관객 수준이 높아 흥행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리트머스 구실을 해서다.

145 아래

서울특별시 - 아이돌 스타

= 한국 청소년들이 빚어내는 팬덤 현상은 뜨겁다. 방송국이나 특정 연예인 집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밤을 지새우는 게 이들 사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팬클럽끼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마찰이 좀더 순쉬워졌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 없이는, 지금 아시아를 넘나드는 여러 한류 스타도 쉽게 탄생하진 못했을 것이다.

146

서울특별시 - 배우 문소리

= 일본, 중국을 위시로 아시아 각지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가수들이 인기를 끌며 '한류'란 말이 생겨났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까지 인기가 높다. 문소리는 아시아보다 유럽에서 인정받는 배우다. 2002 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 배우상을 받았다. 오랜 기간 연극판에서 다져진 연기력이 힘이 됐다.

147

서울특별시 - 배우 하정우

= 배우 하정우는 성장 배경이 다소 유별나다. 자신이 출연한 독립영화가 평단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대중의 인기보다는 감독과 비평가들의 인기를 먼저 얻으며 제 입지를 넓힌 셈이다. 한국 배우들의 외국 활동이나 작품 출현도 크게 늘고 있다. 유명한 배우들을 보려고 한국의 촬영지까지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많다.

148

비보이 전용 극장 관객들

= 소극장 공연을 관객들이 즐기고 있다. 비보이전용 극장이다. 다른 나라에선 만나기 어렵다. 비보잉이 빠르게 젊은이들의 문화로 각광받더니, 2005 년 말 문을 열었다. 새로 움튼 대중문화에 찰나 집단 몰입하는 한국 특유의 기질도 드러난다. 하지만 그보단 유행 문화를 만들려는 생산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이곳에선 서사적인 뮤지컬 무용극을 기획해 2 년 넘게 인기를 이어간다.

149

부산광역시 -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은 한국 영화의 발상지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국내 최대 영화제를 넘어, 10 여년 만에 공히 아시아 영화인의 연대를 이끄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는다. 2007 년 64 개국 275 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그 가운데 66 편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작품이었다.

150

서울특별시 - 한강 선상카페

= 한강변에만 선착장 카페가 일곱 군데나 있다. 땅거미, 음악 소리는 강물에 젖는다. 가족, 연인끼리 오붓이 둘러앉아 하구로 저무는 노을을 본다. 청혼을 즐겨 하는 곳이기도 하다. 강바람 맞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유람선을 타보지 않고 서울을 봤다 할 수 없을 것이다.

151

서울특별시 - 패션쇼

=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다. 우아한 멋은 쉬이 흉내 내기 어렵다. 현대로 오며 한복드레스나 웨딩드레스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입는다. 개량·간소화되어 일상적으로 입는 생활 한복도 보편화되어 있다. 예로부터 한국은 비단을 짜고 가공하는 손재주가 뛰어났다. 결국 세계 패션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고유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52-153

서울특별시 - 애견 문화

= 애견 카페가 크게 늘고 있다. 애완견 사업 규모만 2 조원에 이른다 한다. 기르고 아끼는 이들이 늘어남을 뜻할 텐데, 한편으론 버려지는 개들도 많아진다. 병들거나 싫증이 났다는 이유로,

해마다 5 만여 마리가 유기된다. 2008 년부터 개를 데리고 나갈 때 주인 이름, 연락처 따위가 적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랑은 책임지기라고 법제화한 셈이다.

154-155

서울특별시 - 구두신은 여인들

=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한국이 대단히 활기차고 생산적인 나라인데 비해, 정신적·문화적인 요소들이 서구 사회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거리마다 한껏 개성과 멋을 부린 이들로 가득하다. 세계 어느 도시 풍경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양을 잘 못할 만큼 친절하면서도 또 밝다. 오랫동안 예절이 강조된 오랜 전통 때문이다.

157

☞ 서울특별시 - 서울광장

= 아이들이 신나게 얼음을 지치는 곳은 어느 외곽의 도시가 아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다. 본래 푸른 잔디광장인데, 12 월이 되면 아이스링크로 변한다. 도심 중앙이라 교통이 편하고 저렴하기까지 하다. 외국인들도 북적댄다. 단 두 달 동안 문을 여는데, 2004 년 처음 개장한 이래 2008 년 1 월 20 만 명을 채웠다.

158

서울특별시 - 한강변 수영장

= 여름철 해수욕장은 피서객으로 넘쳐난다. “물 반, 사람 반”이라고 말할 정도다. 반도의 삼면이 바다이고, 시설을 갖춘 사장만 300 곳이 넘는데도 붐비지 않는 곳이 드물다. 한강변엔 수영장 여섯 군데가 마련되어 있다. 지친 하룻길, 퇴근길에 그냥 지하철 타고 와 강물에 피곤함을 씻는다.

159

서울특별시 -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 한 여름 피서로 스케이트만 한 게 있을까.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는 1 년 사계절 붐빈다. 1 천 명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을 만큼 거대하다. 롯데월드는 스케이트장 이외 테마파크, 백화점, 호텔, 면세점, 스포츠센터가 한 곳에 집적된 대단위 복합생활공간이다. 도시 속 도시인 셈이다. 특히 테마파크는 실내 시설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160

강원도 평창 - 용평리조트

= 2007 년 말 평창군은 눈물바다였다. 2014 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1 차까진 1 위였으나 결선에서 밀렸다. 도민의 열망이었는데, 2003 년에 이어 또다시 쓴잔을 마셔야 했다. 용평스키장은 1999 년 동계아시안게임의 주무대였다. 국내 최초 스키장이다. 한국 스키 역사 자체라고들 한다. 이제 이곳은 세 번째 동계올림픽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61

서울특별시 - 서울광장

=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곳이다. 2002 년 월드컵을 응원하던 함성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거대한 인파가 붉은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한국 대표팀 경기를 지켜봤던 바로 그 서울광장이다. 당시 발 디딜 틈 없이 일대 대로가 시민들로 들어찼다. 2004 년 잔디광장으로 단장했다. 계절 따라 각종 행사가 열리며 서울시민의 앞마당을 자처한다. 겨울 두 달은 스케이트장이다.

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 김녕해수욕장

=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제주. 신비의 섬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 물과 또 다른 문화와 생활을 간직해 왔다. 한국 사람조차 때론 이국적 정서를 느끼는 까닭이다. 사진 속 김녕해수욕장과 같은 해변, 360 개 오름과 동굴, 폭포 따위가 조화를 이룬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학술·문화·자연·생태적 가치 때문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163

경기도 파주 - 임진각

=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분단과 함께 이곳서 멈춰있다. 실향민을 위해 1972 년 세운 임진각.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넘실댄다. 해마다 250 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찾는다. 임진각 관광지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은 미래 평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지난해 말 문산에서 북측 판문역까지 오가는 정기열차가 개통됐다. 철로가 끊긴지 56 년 만이다.

164-165

서울특별시 - 한강변 수영장 망원지구

= 몇 분만 걸으면 뽀뽀한 아파트촌이 등 뒤로 사라진다. 강바람에 야들해진 둔치가 대신 펼쳐진다.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낚시, 수상스포츠 따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한강 공원은 모두 12 곳. 여름이면 가족, 연인끼리 돛자리 하나 들고 강변에 몰려든다. 넓디넓은 강변 잔디를 메운 인파는 한여름 진풍경이다.

166

강원도 속초 - 한화워터피아

= 한국에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 년을 고루 나눠 갖는다. 전통적으로 농촌 사회여서 특히나 자연 시계에 맞춰 음식을 즐기고, 야외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젠 계절 과일이란 표현이 우습다. 스포츠 또한 제철이란 게 따로 없어진다. 한겨울 너른 온천 휴양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한여름 도심 북판에서 얼음을 지친다.

167

강원도 속초 - 한화워터피아

= 워터피아는 지친 현대인이 즐겨 찾는 대표적 온천 휴양지다. 버섯 모양의 낙수는 물 안마기나 다름없다. 분주한 일상에 쫓겨 소리 없이 은결든 관절을 위무해본다. 온열 작용과 물의 압력이 더해져 관절염, 요통, 신경통 따위에 좋다고 한다. 한화기업이 운영한다. 주변엔 식당, 스포츠센터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노부모와 함께 온 대가족들을 쉽게 만난다.

168

강원도 속초 - 워터피아

= 온천욕을 즐기지 않는 한국인이 드물다. 피로해소와 피부에 좋다. 도심 곳곳에서도 비슷한 시설이 갖춰져 많은 이들이 찾는다. 섭씨 49 도의 천연 광천수 안에서 여러 중년들이 “시원하다” 외쳐댄다. 이곳은 동해 바다와 변화무쌍한 설악산을 끼고 있어 둘러만 봐도 체증이 가실 법하다. 열여덟 가지 인공파도가 치는 물놀이 시설까지 두루 갖췄다.

169

경기도 여주 - 아리지 컨트리클럽

= 박세리, 최경주, 미셸 위 등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골프 선수다.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2006 년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한 연인원은 2 천만 명. 귀족 스포츠로만 인식되던 게 서서히 불식되어 간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250 개의 골프장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골프장을 가꾸기 위한 농·약품들이 주변 환경을 망친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170 위

서울특별시 -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의 이정표다. 1975 년 서울대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의 법과대학과 문리대 터다. 거리 화가, 아마추어 가수들이 끼를 뽐낸다.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노인, 점심 때 배드민턴 치는 직장인들도 뒤섞인다. 거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연인들도 많다. 한없이 자유로우며 제각각인 듯하지만 하루하루 공원은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170 아래

경기도 성남 - 분당 천변

= 분당은 1990 년대 개발된 신도시다.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44 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촌이다. 과밀화한 서울로부터 1 시간 안팎 거리. 하지만 곳곳에 녹지와 문화공간이 어울려 주거 만족도가 높다. 특히 중앙공원·율동공원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허파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다. 천변 따라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한없이 여유롭다.

171 위

서울특별시 - 서울대학교

= 한국의 향학열은 세계적이다. 사교육 시장이 33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나친 경쟁은 불행을 키우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한국을 급성장하게 하는 알심이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국립대다. 가장 많은 학과가 갖춰진 종합대다. 이곳에 가려고 서너 차례 입시에 도전하기도 한다. 어느 수업에서든 전국서 모인 인재들이 결코른다.

171 아래

서울특별시 - 대학로 = 문화 예술의 거리 대학로. 하지만 마로니에 공원 한편에선 거친 숨 내뿔으며 농구를 즐기는 무리가 있다. 아마추어 춤꾼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힙합이며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인다. 청바지 접어 올린 이들은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묘기를 즐긴다. 어디든 구경꾼이 모여들게 마련이나, 없대도 개의치 않는다. 마냥 분방한 젊음으로 한밤까지 충만하다.

172

경상북도 영주 - 시골 풍경

= 지금도 시골 마을에선 낯선 길손에게도 쉽게 대문을 열어준다. 식사 한 끼 대접받거나 하루 묵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시골 인심'이라 한다.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방학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시골서 머물렀다. 여름철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겨울 뒷산 언덕에서 눈썰매를 타곤 했다. 시골 인심은 여전하나, 개울은 마르고 뒷산도 개발 바람에 갈수록 깎여나간다.

173

강원도 정선 - 강원랜드

= 한국엔 카지노가 열일곱 군데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강원랜드는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한때 폐광촌으로 피폐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개발되었다. 백운산 해발고도 883m 높이에 자리해 주변 풍치가 수려하다. 외국인들도 넘쳐난다. 이젠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을 고루 갖춘 가족 리조트로 변모 중이다. 수익의 일부가 탄광촌, 지역 개발을 위해 쓰인다.

17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페리터미널

= 번득이는 의상을 차려입은 이들이 떼 지어 도심이나 교외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광경은 일상적이다. 개발과 성장에 분주했던 한국이 자전거에 눈뜬 땀 유럽보다 늦다. 여러 지자체들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려고, 왕성하게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자전거에 몸을 맡긴 채, 해안도로 따라 자적의 일주가 가능한 제주도는 라이더에겐 천국과 같다.

175

서울특별시 - 한강변 마라톤

= 마라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됐다. 여름 한강은 마라토너와 라이더로 넘쳐난다. 40km 가량을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쾌적함 때문이다. 산드러운 강바람이 등을 떠민다. 한국은 황영조, 이봉주 등 불세출의 마라토너를 배출해 왔다. 전국 400 만 마라톤 마니아들이 한해 평균 300 개 이상의 대회를 찾아다니며 '서브 3'의 카타르시스를 욕망한다.

176

충청남도 보령 - 머드축제

= 해마다 7 월 대천해수욕장에서 '진흙 난장'이 펼쳐진다. 예로부터 보령은 자원 많고 산자수명해 복 받은 고장으로 꼽혔다. 인근 청정갯벌서 떠온 질 좋은 바다진흙으로 빚은 피부미용 화장품은 으뜸의 특산물. 축제는 이를 계기로 1998 년부터 시작됐다. 남녀노소, 수많은 외국인이 대형 진흙에서 함께 뒹굴고 마사지하는 진풍경은 보령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 되어간다.

177

충청남도 보령 - 머드축제

= 보령 진흙은 몸에 이로운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된다. 외국산에 견줘 게르마늄, 미네랄 따위도 많다. 피부미용 효과가 탁월한 까닭이다. 미국식품의약청이나 일본 후생성의 안정성 검사도 통과했다 한다. 대천해수욕장은 동양의 유일한 조가비 가루로 된 해수욕장이다. 한국의 여인들이 한여름 물려들어 머드팩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기는 이색 썸터다.

178

강원도 태백 - 겨울축제 1

= 강원도는 태고의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고산준령과 물길이 많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나 화전, 수렵이 흔했다. 화전, 인제, 태백의 겨울은 자연을 체험하려는 이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화전천을 덮은 40cm 의 얼음을 깨 산천어를 잡고, 얼음만큼 투명한 빙어를 전국 최대 규모의 청정호수인 소양호에서 낚아 올린다.

179

강원도 태백 - 겨울축제 2

= 강원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겨울 축제마다 한해 100 만 명 안팎이 다녀간다. 대부분 도시화된 사회에서 드물게 산촌문화 체험이 가능한 덕분이다. 태백산 눈축제는 1 월말 새하얀 눈의 마을로 단장하는, 태백의 자랑거리다. 거대한 얼음조각 공원이 형성된다. 눈썰매를 타고, 알몸마라톤을 즐기기도 한다. 추위로 추위를 이기는 별미인 썸이다.

181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복도를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이곳의 특징을 말해준다. 수도 서울의 속살을 역사와 문화를 거울삼아 보여주는 곳. 여느 박물관과 달리 전시물의 7 할은 시민들이 기증한 것이다. 200 명 시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박물관의 일상을 꾸민다. 일과에 지친 회사원도 퇴근 뒤 10 시까지 관람하며 영화·음악까지 즐길 수 있는, 서울 복판 시민의 공간인 썸이다.

182

전라남도 목포 - 식당 김장

= 한국은 김치도 사계절 따라 즐겨 먹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갖은 양념과 재료를 문혀 장독에 묻는 게 늦가을 김장김치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우내 발효된 김치를 꺼내 입맛을 돋았다.

성인병·암 따위 질병을 예방하는 지해도 빛난다. 한국 식당에서 김치 없는 식단을 찾긴 어렵다. 대개 직접 담근다. 재료별로만 따져도 김치는 100 가지가 훌쩍 넘는다.

183

스키리조트 식당, 강원

= 한국 음식은 전통적으로 뜨겁고 맵고 짜다. 지역 차이가 없지 않으나 외국인에게 친절한 음식은 못된다. 그런대도 그들은 단연코 불고기·갈비·김치찌개·비빔밥 따위를 첫손에 꼽는다. 김치는 그리스의 요구르트 등과 함께 세계 5 대 건강식으로 뽑히기도 했다. 더 친근하게 외국인에게 다가갈 한국식 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184

서울특별시 - 소규모 식당

= 도심엔 소규모 식당이 많다. 주방장 한둘이 30 개 안팎의 메뉴를 마술처럼 조리해낸다. 가장 간편한 게 바로 김밥과 라면이다. 서울의 물가는 세계 5 위권이지만 이 음식들만은 최저 수준이다. 천원짜리 김밥과 2 천원짜리 라면 하나로 도시인은 간편하게 주린 속을 달랜다. '빅맥' 가격의 2/3 수준이다. 더더욱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겐 이만한 대용이 없다.

185

강원도 태백 - 태백축제 주변

= 오뎅 노점상은 한겨울 가장 흔한 길거리 풍경이다. 골목마다 피어오르는 냄새와 연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한국인 많지 않다. 오뎅의 종주국, 일본과 즐기는 법이 좀 다르다. 해산물·어묵·두부·달걀 등 다양한 식재료를 주로 그들이 즐긴다면, 한국은 어묵이 우려진 국물을 즐긴다. 한데서 뱀 추위가 국물 한 모금에 사그라진다.

186

강원도 횡성 - 대상 FNF 김치공장

= 예부터 농가에선 이웃들이 서로 김장을 도왔다. 해마다 김장 제철이 뉴스가 되곤 했다. 이젠 무장 낫설어진다. 한겨울에도 신선한 야채가 공급되고, 김치 냉장고는 없는 집이 드물다. 핵가족에겐 더군다나 상점마다 진열된 온갖 김치를 때마다 사먹으면 될 일이다. 대상 FNF 의 '종가집 김치'도 그 가운데 하나. 국산 농산물만 엄선하여 시장을 선도한다.

187

강구항. 영덕, 경상북도

= 어부들이 배안에서 새참을 먹고 있다. 요즘 기름값이 뛰어 수지를 맞추기 어렵고, 젊은 뱃사람도 흔치 않다. 동해안 지역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작은 배일수록 평균 승선 연령이 60 살에 가까웠다. 한숨은 깊어질 테지만, 반도 국가에선 바다가 고향이요 삶의 본거지인 이들 적지 않다. 한둘 찬으로 허기를 누르며 이들도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고 되뇌지 모른다.

188 위

서울특별시 - 롯데마트

= 대형 할인매장이 근래 급증했다. 손님이 몰리면서 동네 구멍가게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24 시간 문을 여는 곳도 있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는 예로부터 유통 명가다. 2007 년 전국 57 곳 매장은 단순히 생필품만 팔지 않는다. 젊은이부터 사로잡는 쇼핑문화공간이다. 노래나 건강관리, 요리 등을 가르치는 문화센터도 마련되어 있다.

188 아래

서울특별시 남대문시장, 굴비

= 굴비는 소금에 절인 조기를 말하는데, 영광굴비가 으뜸이다. 역사적으로 왕의 수랏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이다. 산란을 위해 서해로 오르는 참조기가 영광 칠산 바다에서 많이 잡혔는데, 이때쯤 가장 윤기 나고 알도 알차 그 맛이 빼어나다. 설이나 한가위 등 명절에 친지나 지인들에게 정성스레 전하는 선물이 됐다.

189 위

서울특별시 - 남대문시장 노점상

= 한국 노점상은 거리의 일부다. 골목을 지나는 건 그들을 지나는 일이다. 과일, 떡볶이, 김밥, 오뎅, 튀김, 커피 등등 없는 게 없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를 지키는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생명력은 위대하다. 그것을 인정한 때문일까. 비좁아진 인도를 불평하는 행인도 좀체 마주치기 어렵다.

189 아래

서울특별시 - 포장마차

= 못 배운 한을 풀어달라며 전 재산 2 억원을 내놓은 할머니, 순대 판 하루 수익금을 더 가난한 이웃에게 건네 달라는 부부 등등. 대학이나 이웃에게 거액을 기부한 노점상이 해마다 화제가 되곤 한다. 포장마차는 좀더 자리를 넓혀, 앉을 공간까지 마련한 노점을 일컫는다. 비닐 하나로 바람을 겨우 막을 뿐이다. 하지만 실은 한국인의 웃음과 온정을 너끈히 보듬는 '거리의 온실'이다.

190

☞ 좌 / 강원도 삼척 - 임원항

= 석회석이 풍부한 삼척의 들목, 임원항. 본디 시멘트를 실어 나를 목적이 컸다. 시멘트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도 야원다. 급변한 시대, 옛 영화를 되찾으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은 지극하다. 때마침 울릉도로 가는 쾌속여객선이 이곳에 취항했다. 맛 좋고 값싼 횡집들이 다닥다닥 늘어선 포구가 천리 먼 데 도시인들도 불러 앉힌다. 마을도, 주민도 다시 웃을 날을 기다린다.

191

☞ 전라남도 구례 - 화엄사 가는 길 식당

= 지리산은 영험한 산으로 일컬어진다. 귀한 것들을 품고 있다.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천년 고찰 화엄사도 그 가운데 하나. 경내 각황전만 해도 현존 목조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산이 품고 하늘이 기른 갖가지 구황식물은 덤이다. 산자락 식당이 즐비하다. 온갖 봄나물이 향기를 뿌리며 상찬으로 오를 때 어느 등산객, 상춘객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192

부산광역시

= 수년 전만 해도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이를 나무라는 할아버지의 언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국 성인 흡연율은 23%에 이른다. 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성인 남성은 줄어드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은 늘고 있다. 이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각별하다. 최근엔 입시 동점자 가운데 비흡연자를 우대한다는 대학도 생겨났다.

193

강원도 속초 - 한 식당

= 왕조 시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토산물은 임금에게 진상했다. 드넓은 바다와 산을 두른 강원도는 문어·대구 같은 해산물과 곤드레나물 같은 귀한 산채를 맡았다. 주말 맛 기행을 즐기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을 쉽게 만난다. 외국인도 즐겨 찾는다. 한국의 식당에선 반찬마다 값을 치르는 서구 식당의 광경을 상상할 수 없다. 그냥 더 달라면 된다. 왜? 그게 한국이기 때문이다.

194-5

서울특별시 - 남대문시장

= 남대문 시장엔 의류, 토산품, 생활·수입상품까지 없는 게 없다. 17세기부터 형성된 국내 최대 재래시장답다. 지치거나 좌절했을 때 시장을 찾는다는 한국인들이 많다. 말마따나 새벽 남대문 시장은 들끓는 용광로와 같다. 품질 좋고 저렴한 물건을 사려는 전국의 소매상들로 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낮, 저녁으로 일반 손님은 무장 줄면서 시장의 그늘도 짙어진다.

196-197

서울특별시 - 명동

= 종래엔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문화 특구이기도 했다. 카페와 전통 식당, 극장들이 많아 문학, 음악, 삶 따위를 논하는 건들머리가 가득했다. 60~70년대 '명동파'로 이르던 일군의 예술가도 있었다. 이제 명동은 유행과 첨단 문화만 부각되는 듯하다. 외국인에게도 마냥 쇼핑의 천국일 따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옛 맛'을 보려고 30~40년 된 명동 안 식당에서 줄을 선다.

198

서울특별시 - 홍대 일대

= 홍대는 클럽의 거리이기도 하다. 밤마다 일대는 폭발할 듯한 젊음으로 넘쳐난다. 철저히 10~20대가 주도한다. 자유분방하고 끼 넘치는 스타일은 때론 낯설 만큼 과감하다. 홍대 일대를

모르는 외국인을 만나기 어렵다. 달마다 하루는 1 만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여러 클럽을 오가며 언더밴드의 록·재즈 따위를 다채롭게 즐긴다. ‘클럽데이’다. 서울의 젊음을 상징하는 문화가 됐다.

199

서울특별시 - 청계천 세운상가

= 한국은 7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했다. 개발 시대의 건축물들이 곳곳에서 바투 수명을 다해간다. 세운상가도 2008년 철거돼 녹지로 조성될 참이다. 국내 최초의 종합가전제품 상가로 이름이 높았다. 40년, 서민들의 애환이 배어 있다. 재개발로 서울은 더 번듯해지나 그때마다 새 터전 찾아 떠나야 할 영세 서민들이 있다. 때론 웃으며 때론 울며.

200

경기도 수원 - 정자동 수원교구 주교좌성당

= 천주교가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좀더 늦춰졌을지 모른다. ‘거리의 신부’이길 자처했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상징적이다. 군사독재 시절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 한국 천주교 총본산인 명동성당은 민주 투사를 보호하고 지지해온 성지다. 사진 속 성당은 1997년 지은 것으로, 수원교구는 서울교구 다음으로 신도수가 많다.

201

서울특별시 - 스포츠센터

=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몸짱’이다. 남녀·세대 구분 없이 균형 잡힌 몸을 좇는 사회 풍토다. 수년 전 39살 아줌마가 완벽한 체형관리로 하루아침 스타가 되며 유행어가 됐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말랐는데도 살을 빼다며 놀란다. 비만의 기준이 지나치긴 하다. 한밤중 티브이를 켜면,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은 비만 관리 기구들을 선전하고 있다.

202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 주차 요원

= 중동 항공업체인 에미레이트 항공의 승무원 가운데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다 한다. 능력은 물론, 성실하고도 유연한 서비스 정신을 이유로 꼽는다. 여성이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앞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풍경은 아주 흔하다. 이런 서비스 방식을 외국에서 차용하기도 한다. 예의 바르면서도 부담주지 않는 한국적 친절함이 브랜드가 되는 셈이다.

203

서울특별시 - 명동. 윈도우 닦는 여성

= 화려한 명동이라 해 잡드는 시간이 없지 않다. 하루 15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썰물처럼 물러간다. 휘황한 네온사인이 하나 둘 꺼지면 이곳은 엄연히 수많은 상인들의 고단한 터전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장신구 한가득 실은 젊은 청년이 리어카를 몰고 사라진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또 하루를 준비하는 젊은 점원을 보게 된다. 연간 상가 임대료가 세계 9위권이라니 쉴 틈이 없다.

204

서울특별시 - 지하철

= 지하철에서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승객을 쉬이 만난다. 물건을 팔려고 객차를 오고가는 행상도 흔하다. 때때로 결혼식이 지하 역사에서 치러지기도 한다. 식당과 상점도 한 자리씩 차지한다. 또 하나의 삶이 서울 지하 세계에서 살아 움직인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저마다 국으로 꿈틀거린다.

205

서울특별시, 남대문시장 음식점들

= 오랜 세월 남대문 시장을 상인이 지켰다면, 그들은 밥집 아줌마가 지켰다. 평생 예서만 고유의 손맛을 이어온 전통 음식점이 많다. 사진 속 가게만도 2 대째라고 한다. 광활한 시장을 정처 없이 걷다보면 신기루인 양, 칼국수·보리밥 식당들만 줄을 선 골목도 만난다. 4 천원 안팎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냉면이 또 거저다. 옆 손님과 어깨를 부딪히며 먹는 구수한 장터 맛 그대로다.

206

서울특별시 - 크리스마스이브, 여성 내레이터

= 늘씬한 여성들이 새로 문을 연 상점 앞에서 춤을 춘다. 새 상품도 거리에서 그렇게 선전한다. 대도시 변화가에서나 보던 진풍경이 이젠 일상이 되었다. 이를테면 홍보 도우미인데, 1993 년 대전엑스포 때 처음 등장했던 '도우미'가 확산되고 보편화됐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시급이 3~4 천원 수준인 데 반해 몇 만원을 받는다. 종일 서서 웃음을 지어보이는 지역의 대가다.

207

전라북도 정읍 - 내장산 입구, 식당 간판

= 내장산 들목인데, 식당 간판들로 어지러울 지경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 맛 기행을 즐겼다. 아닌 게 아니라, 내장산은 또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린다. 한국은 산이 많아 지역마다 토속 음식이 잘 발달, 보존돼있다. 특히 20~30 가지 반찬을 정갈히 올린 남도 밥상에 누구든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다. 넘치는 인정에 손가락 쥐기도 전 배가 찢어질 법하다.

208

인천광역시 부평 - 지하상가

= 인천은 한반도의 중요한 관문이다. 오래전에는 교역 선박이 인천항을 통해 한강까지 드나들었다. 1899 년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도 서울과 인천을 달렸다. 내륙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물류는 여전히 많다. 수많은 인천 시민이 또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한다. 부평역에서 서울 지하철과 인천의 지하철이 만난다. 자연스레 인천의 최대 상권이 형성돼 있다.

209

서울특별시 - 코엑스 캐릭터페어

= 2007 년 7 월 말 5 일 동안 ‘서울 캐릭터 페어’가 열렸다. 애니메이션, 만화, 장난감 등 캐릭터 라이선스가 거래되는 국제 장터다. 150 개 국내외 기업이 미래의 미키마우스를 꿈꾸는, 거대한 문화콘텐츠 전시회다. 2006 년 댄 14 만 명이 방문하고 54 억원어치의 현장 계약이 성사됐다. 한국이 기술이나 문화 본위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들이는 공은 대단하다. 자원이 빈약한 운명 탓이다.

210

서울특별시 - 남대문시장

= 재래시장이 활기를 잃어가면서 정부도 걱정이 많다. 백화점이나 최근 늘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부쩍 몰린다. 장사엔 밀물과 썰물이 오고가게 마련이나, 남대문 시장은 1999 년부터 꾸준히 매출이 줄고 있다. 뒷사람에 떠밀릴 만큼 북적이고 호객행위로 시끌벅적하던 곳이었다. 갈수록 쾌적한 주차시설 따위 편리나 고급 브랜드만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11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 서울 지역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66.4%다. OECD 회원국의 평균치는 78.9%다. 한국 사회는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질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006 년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4%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정도가 된다. 이들은 자신은 물론, 수백 년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의 차별에도 동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셈이다.

212

서울특별시 - 솜사탕 오토바이

= 솜사탕은 이제 재래시장 또는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는 주전부리가 됐다. 가난했던 시절, 그저 바라만 보는 아이들도 많았다. 이젠 70~80 년대 과자를 따로 파는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생겨났다. 사라져버린 거리의 불량 식품을 파는 웹 사이트도 있다. 추억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된 셈이다. 할아버지도 솜사탕 대신 추억을 팔고 있는지 모른다.

213

서울특별시 - 토속촌 삼계탕집 종로구 체부동

= 7~8 월 사이 가장 더운 때를 맞아 한국에선 몸보신을 한다. 예부터 삼복더위라 하며 경계하고, 건강과 정신을 다잡는 것이다. 약초 곁들인 보신탕, 삼계탕을 먹으려는食客들로 전국 식당이 미어터진다. 토속촌도 내로라하는 삼계탕 집. 낡은 한옥부터가 운치 있다. 걸쭉한 육수에 육질이 고와 보약이 따로 없다고들 한다. 이런 식당에선 약간의 위생이나 친절은 희생하는 게 또 관례다.

214

서울특별시 - 충무로 오토바이 매장 즐비

= 스쿠터 문화에는 한국인의 개성이 잘 묻어 있다. 젊은이들은 200 만~300 만 원을 주고 산 스쿠터에 200 만 원짜리 튜닝을 망설이지 않는다. 국내외 부품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헬멧만은 국산이 많은데, 공히 세계 시장 점유율 1 위(32%)의 품질과 멋 때문이다. 서울 충무로엔 ‘오토바이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800m 가랑에 걸쳐 400 만 오토바이족을 기다리는 매장이 줄 서 있다.

215

용산 거리

= 용산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북판에 가깝다. 하지만 304 만㎡에 이르는 거대한 미군기지 때문에 발전이 더뎠다. 광복 이후부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 군사령부가 주둔해왔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어서 교통 장애도 컸다. 한-미가 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배경이다. 2013 년 전후 아름다운 공원과 사통팔달의 도로는 서울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다.

216

경상북도 울진 - 핵발전소

= 울진발전소는 여섯 기가 가동해 590 만 kW 를 생산한다.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핵발전소는 이 지역의 중요한 경제 동력이기도 하다. 시설 내 원자력홍보관은 한 해 15 만명이 찾는다. 주변 관광과 연계한 덕분인데, 지하금강이라 하는 성류굴, 백암온천, 해맞이가 일품인 망양정이 유명하다. 자식들이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에 적합한 ‘효도관광’ 상품이 한국엔 발달해 있다.

217

서울특별시 - 압구정동

= 1970 년대 강남이 개발되며 새로운 부촌이 형성되었다. 압구정동이 아파트촌인 반면, 청담동은 고급주택 중심의 마을로 탈바꿈했다. 미국의 비벌리힐스에 비견할 만하다. 다른 부촌보단 비교적 젊은층이 거주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곳은 유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신 음식·패션, 심지어 아이들 장남감에서도 명품·고급 따위가 이곳에선 더 강한 동질감을 부른다.

218

서울특별시 - 노숙자

1997 년 한국은 비유하자면 파산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는 무한 경쟁 체제로 내몰렸고, 낙오한 이들은 거리에 나앉았다. 노숙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 여전히 4 천~5 천명이 한뼉잠을 자고, 다음날 누군가는 깨어나지 못한다. 경제는 유례가 없을 만큼 빨리 회복되었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번에 그들이 사라질 순 없다.

219

제주특별자치도 - 하얏트 호텔 커플룩

= 사진작가는 연인끼리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문화를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선 ‘커플룩’이라고 부르는, 흔한 풍경이다. 제주도는 불과 20 년 전만 해도 신혼부부가 제일로

좁는 여행지였다. 이제 연인이나 가족이 찾는 휴양지가 됐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면세점도 2002년 생겨났다. 드넓은 바다를 맡에 둔 호텔이 많다. 하얏트 리젠시 호텔도 그 가운데 하나다.

220

서울특별시 - 고물상

= 고물상은 가난했던 한국의 상징했다. 아끼고, 다시 쓰는 검약 문화가 지금은 많이 퇴색된 듯하다. 값비싼 휴대폰을 한국인은 대략 2년마다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더 잣다. 폐휴지나 버림치를 주워 고물상에 판 돈을 아끼고 아껴 사회에 헌납한 노인들의 소식이 어렵지 않게 들린다. 노점상의 기부 소식과 함께 한국 사회는 그때마다 훈훈해지면서 또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221

서울특별시 - 흥대, 한국 음주 문화

= 상대의 술잔이 비어있는 걸 제 걸레로 본다. 처음 만난 상대에게 주저 없이 음주량을 묻는다. 한국이다. 어울리길 좋아하고 집단 문화가 발달해 어느 자리든 술이 곁들여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어른 앞에선 몸을 틀어 마시는 등의 예 또한 중시된다. 술 소비량이 커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직장 주변에선 점심때마다 해장국집이 성시를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223

서울특별시 - 포스코

= 포스코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상징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 정책에 따라 1968년 39명으로 시작했다. 자본·기술·경험 따위가 없는 황무지에서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곤 30년 만인 1998년 세계 1위 철강회사로 우뚝 섰다. 2000년 민영화해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최고 주가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바야흐로 5천만 톤 생산을 향해 달린다.

224

경상북도 울진 - 핵발전소

= 자원이 부족한 한국한테 원자력에너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인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새 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은 늘 극렬한 저항을 맞는다. 정부가 지역 공공사업·수익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다. 울진발전소가 지어 지역에 개방한 실내스포츠센터도 주민들 사랑방이 됐다.

225

서울특별시 - 남대문 시장

= 남대문 시장 안 점포는 1만 개가 넘는다. 손님들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 부심하며 변화를 꾀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해서지만, 물경 5만~6만 명에 이르는 이들의 오랜 터전인

때문이다. 전통적 맞수였던 동대문 시장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세련된 의류 전문 시장으로서 슨한 이벤트를 열며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매장 2만여 곳이 하루 800억 원의 매출을 일군다.

226

인천광역시 - 인천공항

=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이다. 2001년 개항 이후 전 세계 195개 도시와 하늘길이 닿아있다. 한 해 3천만 명, 270만 톤의 화물이 오고 간다. 75개 항공사가 취항, 운항 횟수는 24만 차례. 국제공항협회(ACI) 평가에서 '서비스 1위'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항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은 높다. 종사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자체로 거대한 도시다. 아예 공항으로 놀러가는 이들도 있다.

227

서울특별시 - 코엑스몰

= 해마다 2500회가 넘는 국제회의와 이벤트가 여기서 열린다. 1986년 창립한 대표적 전시컨벤션센터다.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려는 국제 경쟁은 치열하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이를 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인 메가박스 시네플렉스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이 코엑스 지하로 웅대하게 펼쳐져 있다. 극장에만 한 해 600만여 명이 찾는다.

228

울산광역시 - 현대조선

= 역사는 30여년에 불과하지만, 한국 조선업은 세계 으뜸이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선박 건조회사다. "바다 위에서 건물 짓는 것일 뿐"이라며 1972년 한 어촌 마을에서 겁 없이 시작한 조선사업. 석유시추선은 아예 육상에서 건조했다. 세계 첫 시도다. 무모한 도전은 현대의 다른 이름 같다. 2008년 274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한다. 2만5천여 명의 직원이 써내려가는 신화다.

229

서울특별시 - 광화문 복원

= 서울시는 조선 왕실이던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복원 중이다. 일제나 전쟁 탓으로 이전되거나 소실된 끝에 복원됐으나 원형과 달랐다. 본래의 광화문과 함께 740m에 이르는 거대한 광장이 함께 꾸며질 참이다. 광화문 앞을 가로막는 16차로 도로를 줄여 조선시대 거리도 재현한다. 시민들은 2009년 말 과거와 미래가 한데 숨 쉬는 역동적 서울로 더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230

부산광역시 - 오륙도

= 바위가 기괴해 동쪽에서 보면 여섯, 서쪽서 보면 다섯 봉우리라 해 오륙도다. 부산항을 드나드는 배는 반드시 여길 지나야 한다. 하지만 조류가 매우 빨라 고래로 뱃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려고 공양미를 바쳤다고 한다. 섬이 내다보이는 해안에선 한참 아파트가 들어서고, 관광 시설도 추진 중이다. 어떤 개발이든 오륙도의 절경을 구성하는 풍경이 된다는 걸 염두에 뒀어야 할 것이다.

231

대전광역시 - 대덕, 태양 에너지 개발

= 한국은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태양열과 같은 친환경·대체 에너지 개발은 숙명이 됐다. 2006년 신생 에너지 비중은 1차 에너지의 2% 남짓에 불과하다. 대덕연구단지는 한국의 첨단과학을 선도하는 대규모 연구학원 도시다. 수만 명의 연구원이 생활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한다.

232

울산광역시 - SK 에너지 공장 1

= 1964년 울산서 국내 첫 정유공장이 문을 연다. 40여년 국내 기술로 석유제품 공급을 선도해온 SK 에너지. 5개의 공장을 가동해 국내 최대 규모인 하루 8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아스팔트 시장에 약 200만 톤을 공급하는데, 7할은 나라밖으로 수출한다.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이 1억 배럴을 돌파했다.

233

울산광역시 - 쇼윈도우

= 첨단공업 도시 울산. 초우량기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에너지에 중소기업만도 5천여 개다. 기름때를 문힐지언정 삶은 풍요로운 노동자 계층이 도시의 근간을 이룬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만 4만 달러 수준. 대신 시민들은 환경오염·공해 도시 따위 오명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부자 도시'는 최근 어마어마한 환경개선 예산을 쏟아 부으며 그조차도 불식시켜간다.

234

서울특별시 - 구로역 건설현장

= 물에 자주 잠겨, 부인은 없어도 장화 없인 못 사는 곳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한다. 1964년 첫 수출 전진기지로 만든 옛 구로공단 일대다. 섬유와 봉제업 위주의 성냥갑 공장들과 가난한 직공들의 터전이었다. 이젠 7500여개의 아이티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디지털단지다. 옛 모습 온데간데없다. 젊은 근로자들로 활력이 넘치고, 사방이 쾌적한 기업 도시가 된 것이다.

235

울산광역시 - SK 에너지 공장 2

= 1998년 울산 남동쪽 바다에서 경제성 있는 양질의 천연가스층을 발견했다. 1960년대부터 수많은 석유 탐사가 실패한 뒤 겨우 얻은 결실이었다. 에너지 절약은 나라의 화두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양의 석유를 쓴다. 수입 규모는 5위. 국가는 1970년대 말부터 해외로 나갔다. 14개국 23개(06년 기준)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해 하루 4만 배럴을 생산한다.

236

경기도 용인시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 삼성전자 반도체는 한국의 브랜드가 아니다. 지구촌 브랜드다. D 램의 경우, 세계 시장의 30% 안팎을 차지하며 15년째 수위를 차지해왔다.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은 삼성이 세계에 내건 약속이기도 하다. 황창규 반도체총괄 사장의 성을 땀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수년째 삼성전자를 꼽고 있다.

237

서울특별시 - 국립중앙박물관

= 반만년 역사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자긍심은 상당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얼굴. 13만 5천여 점의 소장 유물 중 5천여 점을 주제별로 전시한다. 2005년 새로 이전하며 경천사 10층 석탑을 복원했다. 고려 후기 13m가 넘게 쌓아올린 대리석탑이다. 장려하면서도 섬세하여 한민족의 특성이 도드라진 희귀 유산으로 꼽힌다. 새 개관 40여일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

238

강원도 속초 - 엑스포타워

= 8만 5천여 명이 사는 중소도시에 날마다 3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오간다. 관광 도시 속초다. 설악산 꼭대기부터 여러 유적지, 잠수정 이용한 해저 관광까지, 입맛대로 여행이 가능하다. 전통적 삶과 현대적 산업이 녹아 있다. 이북을 눈앞에 둔 채 아쉬움과 한으로 삶을 일궈온 실항민들의 마을과,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때 들어선 타워가 저마다 속초의 랜드마크가 되듯.

239

경기도 부천 - 아인스월드

= 수도권 부천에서 걸으면서 즐기는 세계 여행이 가능하다. 2003년 문을 연 에듀파크 아인스월드다. 세계 25개국 109점의 유명 건축물이 세워졌다.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과 7대 불가사의 등이 모두 1/25 비율로 축소된 미니어처 파크다. 음향과 조명이 어울려 밤이면 건축물의 느낌이 환상적으로 살아난다. 멀리 덩실한 아파트와 견주면, 현실이 환상 같고 환상이 외려 현실 같다.

240

서울특별시 - 청계천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계천 일대를 애써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자연 하천은 1958년부터 복개되어 70년대 전후 완전히 감춰졌다. 고가도로가 하늘을 가리고 상가들은 어지러이 놓였다. 근대화한 게 토랄까. 서울시는 30여년 만에 청계천을 복원했다. 어느 도시라도 부러워할 시민들의 쉼터가 됐다. 하지만 천에는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애환도 함께 흐른다.

241

#### 서울특별시 - 서울역

= 교통 수요가 늘며 1974 년 지하철이 처음 개통됐다. 서울 안으로 수도권까지 잇는 10 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닿아 있다. 그로부터 30 년 뒤인 2004 년, 시속 300km 안팎의 고속철도가 생겨난다. 전국 기차길이 시작되고 주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역은 철도의 심장부다. 그래서 서울역의 표정은 지역 사람들에게겐 종종 처음 각인되는 서울의 인상이 된다.

242

#### 서울특별시 - 남대문

= 600 년 된, 단아하고도 웅장한 한국 특유의 멋이 그대로다. 조선 시대 서울 도성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사대문을 관문 삼았다. 귀한 외국 사절은 꼭 이 남대문을 지났다. 성문의 현판은 보통 가로 꼴인데 여긴 세로다. 불을 막으려는 풍수 장치다. 하지만 그 영감이 다한 것일까, 2008 년 2 월 큰 화마를 입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가장 오래된 서울의 목조 건물로 기록됐던 숭례문의 마지막 원형을 여러분은 보고 있다.

243

#### 서울특별시 - 청계천

= 청계천은 예로부터 서울의 생활문화를 편제하는 축이었다. 천 양쪽으로 도로가 생겨나고 장도 섰다. 천을 잇는 많은 다리들은 약속 장소나 마을 축제의 장소가 되며 삶을 확장해줬다. 2 년여 대공사로 6km 에 이르는 천이 현대적으로 되살아났다. 도로 아래서 수십 년 썩어가던 그곳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도 비친다.

244

#### 부산광역시 - 자갈치 시장 어구

= 자갈치 시장 주변 앞바다다. 진짜 풍경은 물에서 보는 바다가 아니다. 고깃배에 실려 영도대교, 등대, 부산공동어시장 등지를 둘러보는 맛이 일품이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의 생명과 같다. 해질녘 시장에서 나온 구수한 생선 냄새가 도심에까지 흘러든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선 전국 수산물의 3 할이 거래된다. 새벽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이 몰려 언제나 부산을 깨운다.

245

#### 울산광역시 - 현대자동차 선적

= 전 세계 190 개국에서 현대차를 만난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수출산업의 만형을 연상시킨다. 2003 년 연간 수출 100 만 대를 돌파했다. 2004 년엔 수출누계로 1 천만 대도 넘어섰다. 28 년, 세계 최단 기간. 미국 소비자 만족도 1 위(2002~03 년), '세계 100 대 브랜드'란 평가는 국민의 긍지다. 2008 년 1 월 국내외에 24 만 4 천 대가 팔렸다. 이제 친환경 차량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246

#### 경상남도 사천 - 삼천포항

= 삼천포항 일대엔 크고 작은 항구 47 곳이 떼지어있다. 한밤중 고기잡이 불빛들로 포구는 때 이른 아침을 맞는다. 사천시엔 모두 2079 척이 등록되어 있는데, 늙은 어부들과 함께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 진하다. 일대엔 멸치, 전어, 갈치 등이 많이 잡힌다. 유속이 적당하고 플랑크톤이 많아 이곳 앞바다 수산물은 맛있기로 소문나있다. 전체 시인구의 14%가 수산업에 종사한다.

247

서울특별시 - 홍대 주택가 뒷골목

= 일대가 예술의 거리가 된 데는 전통 깊은 홍익대 미대의 영향이 크다. 재료상이나 화실, 독특한 전시 공간이 생겨나며 가랑비에 옷 젖듯 '홍대 문화'가 축적됐다. 들쭉이는 유흥 상권과 한국 예술교육의 한 축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첨단의 유행과 빈티지 멋이, 밤이 없는 변화가와 사진처럼 밤만 있을 듯 조용한 주택가가 또한 공존한다. 흥미로운 곳으로 도시건축가가 많은 꼽는 까닭이다.

248-249

☞ 부산광역시 - 부산항

= 바다를 마당삼은 도시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남동단에 위치해 오랫동안 나라의 바다 관문 구실을 해온 부산항이다. 되레 서울보다 빨리 유행 문화를 선도하곤 했다. 전국 항구에서 수출입되는 컨테이너의 74%가 처리되고, 120 만 명이 오고 가는 항만 물류의 중심지다. 184 대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세계를 망라하는 무역항로가 뱃길로 연결된다.

250-251

경상남도 거제 - 대우조선해양

= 통째 조선소가 된 듯한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가족 2만 6천명이 구슬땀을 흘린다. 2007년 세계 10대 조선소 가운데 6개는 한국에 있다. 현대·대우·삼성 등이 함께 5년째 조선업 1위의 역사를 일구고 있다. 한국인들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을 스스로에 곧잘 비유한다. 나라 안 경쟁이 세계 경쟁이다. 대우가 한때 세계 선두였으나, 현대에 자리를 내주고 대신 LNG 선 건조를 선도한다.

252 위

충청남도 논산 - 여군

= 한국의 여군은 4천여 명이다. 전체 군의 2.7%인데 장교가 절반이다. 여군의 지위나 처우는 우리 사회 여성 평등의 가늠자가 되곤 한다. 1988년까지만 해도 임신하면 제대해야 하는 차별 규정이 있었다. 여성 장군은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이나, 실력을 겨루면 너끈히 앞서는 일이 많다. 2006년 공·해군 사관학교에선 4년 전 수석 입학했던 여생도가 나란히 수석 졸업을 했다.

252 아래

경상북도 포항 - 해병대

=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해병대. 1949년 4월 380명으로 시작해 상륙작전, 특화거점 방어 등을 수행하는 다목적 신속대응군이다. 1950년 9월 한미 양국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위태롭던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었다. 앞서 8월 단독으로 경남 통영을 탈환하던 때, 미국 중군기자가 “귀신조차 잡을 듯 했다”고 묘사해, 이제까지도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부른다.

253

충청남도 계룡 - 계룡대

=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거의 없다. 하지만 반세기 전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는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때문에 평화에 대한 염원도 남다르지만, 여전히 분단된 상황에서 세계 9위의 군사력(2007년 기준)을 갖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도 세계 10위권이다. 연인원 1만 9천여 명이 해외 16개 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54

경상북도 포항 - 해병대 2

=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에서 보듯, 해병대의 결속력은 제대 후에도 대단하다. 혹독한 훈련과 함께 다져진 전우애와 자긍심 덕분인데, 연고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예닐곱 차례 도전 끝에 해병이 된 이들도 적지 않다. 부러 귀화하기도 한다. 2008년 1월 495명 훈련병 가운데 57명이 두 차례 이상 지원 끝에 겨우 성공했다.

255

DMZ - 경계

= 한 해 20만 명 안팎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한다. 한국 남성들의 의무다. 저마다 24~27개월, 주체 못할 젊음과 개성은 엄격한 규율 아래 유보해둔다.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다. 때문에 군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선후배의 관계 또는 개인보다 집단이 강조되는 한국식 위계와 질서의 밑바탕이 되곤 하는데, 긍·부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256 위

257 아래

좌 상-우 하 / DMZ

= 남과 북은 휴전과 동시에 어떤 시설이나 출입도 불가능한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 휴전선에서 2km 씩 물러난 곳에 놓인 철책이 반세기 넘게 한반도를 가른다. 부르면 들릴 듯한 남북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대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는 토착 생태계가 생동생동 어우러진 광활한 ‘자연 박물관’이 됐다. 멸종된 줄 알았던 산양 떼도 남과 북 없이 뛰어논다.

256 아래

257 위

좌 하-우 상 / 충청남도 논산 - 논산훈련소 1

= 찢어진 청바지만 입던 청년도, 6 주간의 군사 훈련 뒤 일추 군복이 어울리게 된다. 육군 최대 신병훈련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들이 호된 훈련과 낯선 단체 생활을 겪으며 흘린 눈물과 땀은 얼마였을까. 그 수가 680 만여 명에 이른다. 입소일, 터질 듯한 눈물을 꼭 삼키며 부모님께 큰절하거나 안절부절 애인의 손을 놓지 못하는데, 2 년의 이별은 기어코 오고 말았다.

259

서울특별시 - 서울시청 증축 현장

= 지금 서울은 곳곳에서 새 단장 중이다. 예전 건축물을 허물고 녹지로 만든다거나, 건축유산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일들이다. 1926 년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울을 지켰던 시청사도 탈바꿈한다. 무엇보다 정숙한 구관과 주변의 덕수궁·서울광장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에 더디다. 디자인 선정에만 2 년 가까운 시간을 들였다. 비밀의 장막은 2009 년 4 월 걷힐 것이다.

260

서울특별시 - 인사동

= 인사동 골목에 햇살 한 줍 나앉는다. 이곳에선 글로벌 커피전문점인 'Starbucks'도 그냥 스타벅스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현지 언어로 간판을 달았다. 일대엔 전통 찻집과 순 우리말로 이름 지은 카페, 음식점 따위가 가지런하다. 신기한 눈으로 풍물점을 둘러보는 외국인들도 일상적이다. 대표적인 전통문화 거리지만, 근래 외국문화와 무질서하게 뒤엉킨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261

경상남도 경주 - 포석정 연인

= 마치 돌로 놓은 수로가 붓으로 그은 듯 자유롭고 부드럽다. 물 위론 술잔을 띄웠다 한다. 경사나 굽이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술잔도 춤을 췄다고도 한다. 신라시대 왕의 별궁이었던 포석정. 조각술이 극치에 이르던 9 세기에 지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천년 신라가 허망하게 막을 내린 곳도 이곳이다. 남녀 관계도 그렇게 화려하다 찰나 시드는 꽃일까.

262

부산광역시 - 해운대

= 부산은 1875 년 근대 국제항으로 개항한 이래, 대표적인 무역·상공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한국전쟁 땀 전국의 피난민이 몰리고, 임시 수도가 세워지기도 했다. 받아들이는 것이 빨라 옛것과 새것이 다채롭게 얽혀있다. 고유의 지역정서와 문화가 형성된 배경이다. 구릉성 산지가 도시 전반적으로 발달해 바닷가로 내려앉는다. 이 또한 드물게 부산이 가진 풍경이다.

263

충청북도 충주 - 충주호 유람선 연인

= 계곡을 막아 만든 다목적 호수가 사계절 변화무쌍한 대자연을 비춘다. 국내 최대 호수, 충주호다. 뱃길 130 리, 유람선 위에서 둘러보는 자연 경관마다 따뜻하거나 슬픈 전설이 곁이친다.

옛 선조들이 남긴 시화들이 많고 멋스럽다. 충주는 월악산국립공원, 단양 8 경, 고수동굴, 수안보 온천 등을 주변에 두른다. 충북은 바닷가가 없는 유일의 지자체인데, 호수 덕분에 아쉬움이 없다.

264

전라남도 보성 - 보성녹차밭 연인

= 차 한 잔에 삼라만상이 우려진다는 게 동양적 사고다. 기르고 즐기는 과정서 얻는 섭리와 풍류 덕분이다. 한국의 차 문화는 더더욱 승려, 유생들과 함께 성숙했다. 푸른 바다처럼 차밭 너울대는 보성. 대한다업이 1957년부터 가꾼 다원을 관광농원으로 개방했다. 해발 350m에 30만 평 규모로 펼쳐진 장관을 보려고 해마다 150만 명이 다녀간다. 맑은 깊은 차 맛은 덤이다.

265

경상남도 하동 - 쌍계사

= 한국은 불교로 오랫동안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사찰만 전국 3천여 군데다. 수천년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들이다. 저마다 지역 명산에 가부좌를 틀고서 경승을 이룬다. 차나무와 천년 느릅나무, 봄철 벚꽃이 매혹적인 쌍계사도 마찬가지. 쌓인 눈 위로 꽃 피는 곳을 계시 받고서 723년 터를 잡았다 전해진다.

266

☞ 서울특별시 -서울역

= 서울의 교통 체증은 세계 어느 대도시 못지않다. 지하철 체계가 발달하며 독특한 문화가 따라 형성되었다. 시루 안 콩나물인 양 승객들을 채워 떠나는 출근 역사는 한국만의 진풍경이다. 승객을 객차로 밀어 넣는 '푸시맨'까지 있었다. 서울 내 노선만 하루 550만 여명을 실어 나른다. 길이는 290km, 세계에서 네 번째다.

267

인천공항

사진속의 근사한 실루엣은 사실 시위중인 노동자들이 쉬고 있는 모습이다. 근래 부쩍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로 한국은 큰 갈등을 겪고 있다. 2007년 상위 2%의 평균 소득이 하위 2%의 7.66배에 이른다.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사상 최고다. 비정규직 같은 불안한 고용이 많아진 게 큰 원인이다. 이런대도 사회는 현저히 개인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큰 이바지 했던 노동운동도 점차 외면 받고 있다.

268

제주특별자치도 - 해녀춤

= 제주도는 삼다도라 일컫는다.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아서다. 하지만 이제 30대 해녀는 전체의 15%대에 불과하다. 취학도 하기 전 해업을 배운 제주 해녀는 15살 이후부터 물질로 평생 가정만 바라지해왔다. 전통적으로 제주 경제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김을 매지 않으면 물로 들어가야 했던 고단한 숙명은 이제 서서히 준다. 대신 춤이나 박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